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 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11월 11일 시민협회가 주최한 영리더십심포지움에 참가한 남궁주환 대표(왼쪽에서 세번째)가 다른 2명의 연사들과 함께 채널 5의 티파니 채 앵커(왼쪽 첫번째)의 사회로 질의 응답에 답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티파니 채, 리사 플로어스, 남궁주환, 이형직(직함 생략)

팬데믹 위기를 기회로 이끈 남궁주환 클라리티 대표

시카고 트리뷴 "시카고 일하기 좋은 직장 6위"에 올라
팬데믹에도 매출도 연 3천만 달러로 2018년보다 성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톤 출신 한인 2세 남궁주환 (53, David Namkung)씨가 창업한 시카고 소재 테크놀로지 컨설팅 회사 클라리티 파트너스가 올해

일하기 좋은 직장 6위에 선정됐다. 회사 성장을 중요시 하는 그가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를 거치며 회사 성장과 직원복지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이다.

시민협회 영리더십심포지움의 연사로 초청돼 보스톤을 방문한 남궁주환 대표는 “팬데믹 전에는 고용할 엄두도 못내던 직원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며 늘 위기는 기회와 동시에 온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궁연 전 재관위원장의 아들인 남궁주환 대표를 11일 앤도버 소재 아버지 남궁연 전 회장 자택에서 만났다. 2018 ▶▶6면으로 계속

임시 휴간 안내

11월 24일자 임시 휴간합니다

미국속 한인들의 땡스기빙 문화는 어떻게 다르나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보조교사회 설문으로 조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태수, 편집부 = 다가오면서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날씨가 더 추워지고 있다. 미국의 큰 명절이자 연말 할러데이 시즌의 시작인 땡스기빙(Thanksgiving, 추수감사절)이 가까워지고 있는 신호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 전통 명절인 추석을 즐기듯이 미국의 한인 2세대들은 미국 문화에 동화되면서 땡스기빙을 명절로 지낸다. 하지만, 다수의 한인가족들이 땡스기빙을 즐기는 문화는 미국사람들이 땡스기빙을 즐기는 문화와 생각보다 제법 다르다.

이를 좀더 알아보기 위해 뉴잉글랜드 한국 학교에 다니는 보조교사들과 보스톤 인근에 사는 한인가족들에게 이번 ▶▶8면으로 계속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617.504.0609
law@lookjs.com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3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벽을 넘어선 3인의 한인 2세대들 그 비결은?

시민협회 영리더십심포지움 성황리에 마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뉴잉글랜드 시민협회는 코리안어메리칸스토리닷컴의 HJ리, 클라리티 파트너스 남궁주환 대표, 콜롬버스 호스피탈리티 그룹의 마케팅 디렉터 리사 플로어 3인을 연사로 초청, 그들 삶의 지혜를 엿들었다.

11월 11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뉴튼소재 포포인츠셰라톤호텔(Four Points By Sheraton)에서 개최된 이번 영리더십 심포지움에서는 각각 다른 배경을 지닌 3명의 연사가 올해의 주제인 “Breaking Barriers and Empower Changes”를 화두로 이야기를 나눴다.

HJ리(한국명, 이형직)는 코리안어메리칸 개인들의 이야기를 모아 이 경험을 통해 코리안어메리칸 이민사를 기록하는 코리안어메리칸스토리닷컴을 2010년 시작했다.

의사였던 아빠슬하에서 자란 그는 콜롬비아대에서 의사의 길을 포

구하고 동북아역사를 전공했다. 졸업 후 10여개의 직업을 거쳐 2008 금융위기 때 직장을 잃었다. 당시 46세였던 그는 다른 직업을 갖지 않기로 하고 비영리 단체인 코리안어메리칸스토리닷컴을 시작해 개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기록했다. 그가 이것을 시작한 이유는 대학시절 청과상을 하던 한국 아저씨를 보며 그의 삶에 대한 궁금증이 일었던 것을 떠올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민 1세대 한인들의 삶의 경험을 나눔으로서 2세대들이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레거시 프로젝트 400여개 다큐멘트를 기록했다. 이후 나야, 해피클리너스, 60트 간격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그 외에도 팟캐스트, 라디오 등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남궁주환 클라리티 파트너스 대표는 시카고의 컨설팅 회사 클라리티 파트너스의 대표다. 남궁대표는 어머니가 32세에 홀로 미국에 건너



와 일하며 모든 가족을 불러 들인 것을 이야기하며 어머니로부터 장벽을 깨뜨리고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님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며 “그들은 롤모델이며 지원 시스템이다. 언제나 나를 위해 함께 한다”고 말했다.

2002 월드컵에서 자신이 한국과 미국의 경기에서 한국을 응원하는 것을 깨닫고 코리안어메리칸에 대해 더욱 자각했다. 그는 클라리티 파트너스를 2004년 시카고에서 시

작하면서 소수민족사업체 프로그램에서 아시안이 철저하게 배제 당하는 것을 경험하고 결국 아시안을 대변할 정치인이 없어서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2005년 시카고에는 단 한명의 선출직 아시안이 없었다. 그는 아시안 정치인 선출운동에 참여해 현재는 연방상원, 연방하원, 그리고 12명이 넘는 아시안 하원을 당선시켰다.

샘윤, 댄고, 앤디 김 등을 시카고로 초청해 선거자금모금운동을 했으며 샘윤과 권을 등이 CKA를 출

발시켰을 때도 적극 참여했다. 아시안 최초의 사모펀드 회사를 수잔 윤이 시작할 때 함께 파트너로서 회사를 시작했다.

리사 플로어스 콜롬비아 호스피탈리티 그룹의 마케팅 디렉터는 멕시코 어메리칸인 미군이었던 아버지와 한국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텍사스에서 어려운 어린시절을 보냈으나 누구든지 균등하게 이야기하는 것과 언제나 중재하려 했던 것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다. 불우한 환경을 ▶▶3면으로 계속

서울설렁탕
SEOUL SELLENGTANG

SUMMER SPECIAL COLD NOODLES

N1. 물냉면
Mul-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N2. 비빔냉면
Bibim-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COMBOS cold noodles+bbq

N3. 냉면+삼겹살구이
Naengmyun + Samgyeopsal Gui (pork belly)

N4. 냉면+L.A.갈비
Naengmyun + L.A. Kalbi (beef short ribs)

N5. 냉면+돼지양념구이
Naengmyun + Daeji yangnyum Gui (pork slices)

Before placing your order, please inform your server if a person in your party has a food allergy.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2면에 이어서

벗어나서 고등학교에서 나온 삶에 집중했다. 교회에서 한국의 문화에 대해 배웠다. 한국 커뮤니티는 가족처럼 지내고 서로 돕는 것이다. 텍사스를 떠나 BU를 선택했다. 한국 문화에서 경쟁을 배웠다. 레스토랑 호스티스로 사회생활을 출발했다. 성공하겠다고 결심하고 뛰어난 활약을 보이며 계속 승진을 거듭했으며 22년이 지난 지금은 회사 고위임원으로 재임하고 있다. 또한 보스턴 대학에서 외래교수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아시안 학생들이 자신감이 없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반드시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한다면서 퍼블릭 스피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패널들은 채널 5의 티파니 찬의 사회로 질의응답을 가졌으며 티파니 찬은 뛰어난 진행 솜씨로 패널들의 진솔한 답변을 이끌어냈다. HJ 리는 2세들에게 “자신을 용서할 줄 알라”고 조언했고, 남궁주환 대표는 “억만장자, 또는 어떤 고위직도 우리와 다를 게 없다. 결국 이들에게 위축되지 말라”고 조언했다.

연사들의 강연에 앞서 양미아 시민협회 회장은 “생의 한가운데”라는 책을 소개하며 주인공 리나의 두려움 없는 도전에 반했으며 자신도 한국의 집단적인 사고에 반해 벽을 깨고 미국으로 건너와 심리치료사의 길을 걷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자신이 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청소년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이라며 오늘 스피커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휘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시민협회 회장단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김총영사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모든 장벽은 강한 결단력과 자신감으로 극복 가능하며 도전은 동시에 기회”라고 말했다. 또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재능과 가진 재원을 가지고 사전에 대처해야 하며 이 과정 중에서 협력은 아주 중요하다. 지식을 나누고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도 실패는 성공의 디딤돌이니 실패를 통해 배우라고 말했다.

이날 사회는 크리스틴 리 시민협회 사무총장이 맡아 진행했으며 약 100여명이 참가했다.

하버드 신입생 60%이상 동문자녀 우대, 레거시 입학 찬성 안해

하버드 크림슨 연례 신입생 설문조사, 신입생 절반 정도 응답

(보스턴=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어머퍼티브액션이 대법원의 결정으로 폐지되는 시점에 하버드에 지원했던 하버드 신입생 대다수인 60% 이상이 동문 및 기부자의 자녀를 우대하는 레거시 입학에 반대하는사를 밝혔다.

하버드 크림슨이 14일 발표한 하버드 신입생 여론조사에 따르면 63%의 신입생이 레거시 입학을 반대했으며 13.7%는 찬성의사를 나타내 22.7%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신입생 중 75%는 부모, 형제 또는 친척이 하버드에 다니지 않았다고 밝혔다. 레거시와 연관이 없는 학생들의 반대 의

견은 전체보다 조금 높은 66%였으며 레거시 조건이 되는 학생들 중에서는 55%가 레거시 입학을 반대했다.

동문이나 기부자들의 자녀들을 우대하는 레거시 입학제도는 대법관들,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민주 공화 양당의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미 교육부는 지난 7월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을 비롯한 3개 조직의 고소에 대응해 하버드의 레거시 우대 정책에 대해 인권침해 여부 조사를 시작했다.

하버드 크림슨에 따르면 하버드 클로딘 게이 총장은 10월 인터뷰에서 입학정책의 변화 여부에 대해 “

모든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레거시 정책이 폐지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8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된 이번 크림슨의 신입생 조사에는 총 45.9%의 신입생이 참여했으며 표준 오차는 고려하지 않았다.

응답자의 40%는 백인이었고 32.3%는 아시안, 흑인은 11.1% 그리고 라틴계열은 9.4%였다. 미국원주민과 하와이 원주민은 2.2%였다.

응답자의 85%는 입학 신청서에 자신의 인종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약 39%는 에세이에서 자신의 인종 정체성을 언급했다고 밝혔으나 61.3%는 밝히지 않았다. 자신의 인종을 언급한 신입생의 97.6%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왜곡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득이 50만달러 이상인 학생들의 30%는 대학입시 카운슬러를 고용했으며 25만에서 49만 9천달러의 학생의 18.7%가 카운슬러를, 12만 5천에서 24만 9천달러 소득의 17.9%가 카운슬러를 고용했다. 12만 4천달러 이하의 가정에서도 약 6-7%가 카운슬러를 고용했다.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10월 주택 매매 2011이래 최저, 숨통 언제 트이나?

높은 모기지 이자로 주택 매물 거의 없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10월 그레이터 보스톤지역 1가구 단독주택과 콘도미니엄의 거래가 지난 2011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그레이터보스톤부동산중개업협회인 14일 발표한 10월 그레이터보스톤 주택 판매 동향에 따르면 한달 동안 782채의 단독주택이 판매됐다. 이는 지난해 10월에 비하면 12.6% 하락한 것이지만 9월에 비하면 소폭 상승한 수치다. 콘도미니엄은 680채가 판매돼 지난해에 비해 10.2% 하락했으며 9월과 비교해서도 2.9% 하락했다.

GBAR 엘리슨 소차 회장은 “모기지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와 집값의 상승은 아주 적은 매물을 두고 경쟁을 벌이게 만들기 때문에 구매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구매의욕까지 꺾어 주택 수요가 급감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경향은 올해 내내 지속되고 있다. 고금리 모기지를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 판매를 기피하고 신규 주택 건축도 줄어든 상태에서 구매할 집을 찾기 쉽지 않아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

단독주택의 중간 가격은 \$829,950로 지난해에 비해 10.8% 상승했다.

다만 9월 중간가 \$849,950에 비해서는 월별로 2.4% 감소했다. 콘도 가격은 \$694,812로 지난해에 비해 13.7% 상승했다.

소차 회장은 “지난해에 비해 조금 가격이 높은 것은 대부분이 낮은 매물 때문”이라며 “수요를 감당할 만한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어 집값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0월의 가격은 지난 8월 사상 최고가였던 \$900,000에 비해서는 비교적 상당 수준 하락한 상태다. 즉 9월부터는 완고하지만 그래도 일정 수준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다.

hsb@bostonkorea.com



화이트마운틴서 크리스마스 트리 \$5에 잘라주세요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크리스마스 트리를 화이트마운틴에서 잘라서 바로 집에 장식할 수 있다. 거리를 개의치 않는다면 5월에 잘라 올 수 있다.

단 한 가정당 한 개의 크리스마스 트리만을 자를 수 있으며 체인으로 된 톱 등 기계 톱은 허용하지 않는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나무 두께가 지름 6인치를 넘지 않아야 하며 가슴 높이의 크기여야 한다. 자르고 남은 그루터기 높이는 10인치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들 나무는 공원이나 캠프그라운드로부터 100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서 자라는 것이어야 한다. 황무지 지역, 실험 식수 또는 개인 사유지에서의 트리 자르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화이트마운틴 삼림국은 나무를 자르고자 하는 가족들은 어떻

게 이를 운반해 올 것인지 충분한 계획이 있어야 하며 그만큼 큰 차량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화이트마운틴은 언제든지 기후가 급변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이므로 적절한 방한복, 충분한 음식 그리고 폭설에 감했을 경우를 대비한 생존 키트 등도 준비해야 한다. 셀폰이 터지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는 지역도 있어 산속의 날씨만큼 변덕스럽다.

5월짜리 트리 자르기 허가는 화이트마운틴 국립산림청(White Mountain National Forest offices)에서 온라인으로 구입 가능하다. <https://www.recreation.gov/tree-permits/27dc4740-ec5d-11ea-8045-36969f3be2d> bostonkorean@hotmail.com

스티브 배 변호사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이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7일 24시간 변호사와
상담 가능합니다



Steve Bae

이민법 전문 변호사

781.457.8846

steve@attorneystevebae.com
attorneystevebae.com

48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ICON DENTAL 아이콘 덴탈



Dedicated to
Your Health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통한 성인 및 청소년 치열 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전화 617.957.8133

57 Bedford Stree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oad, Suite A8, Concord, MA 071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수술 및
잇몸질환 전문의

3%이하 모기지 보유 집주인들, 고금리로 10만달러 이상 수익

WSJ, 저금리 미 모기지 대출, 높은 가치의 자산으로 평가되어야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매달 꼬박꼬박 갚아야 하는 부담이 아니라 현재와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이를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4일 보도했다. 지난 2년동안의 이자율 폭등 상황에서는 현재의 저금리 모기지를 빛이 아닌 가장 가치있는 자산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갚아야 하는 대출을 하나의 자산으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시장에서 사용되는 논리를 적용하는 경우 금리가 폭등하면서 은행들과 채권보유자들은 1조달러가 넘는 부의 가치를 주택 대출 보유자에게 넘겼으며 이는 수혜자들이 대부분 현재 무시하고 있는 수익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지난 2020년말 모기지 금리가 오르기 전 3% 이하로 모기지 대출을 고정시킨 집 소유주들은 단순한 행운으로 여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재 8%에 가까운 모기지 금리 상황에서 평균 주택모기지 대출자들의 경우 수만달러의 부를 가지게 된 것이다. 3% 이하의 30년 평균 규모의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10만달러 이상을

번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이 같은 부를 창출한 것이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그렇지만 집 소유주들은 현재의 모기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과거와는 달리 현재의 집을 팔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부의창출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재정적으로 모기지를 갚는 것 이상으로 많은 돈을 저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어 놓기에 중요하다. 부유해졌다는 느낌보다는 좋은 시절에 리파이낸스 또는 파이낸스를 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된다. 이는 경제와 개인 재정에도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모기지를 가치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출 은행의 가치를 고려해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모기지를 다른 모기지 와 합쳐 페이내매 또는 프레디 맥을 통해 채권으로 팔게 된다. 이 채권의 가치는 금리가 상승하면서 곤두박질치게 된다. (예를 들어 어제 2%의 이자율에 1천달러의 1년만기 채권을 샀는데 오늘 이자율이 4%로 올랐

면 이자율 4%의 1년만기 채권이 훨씬 가치가 높기 때문에 2% 이자율의 채권은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2021년 초에 발행됐던 모기지담보채권은 가격이 30%나 하락했다. 즉 채권 보유자의 30%의 손실을 뒤집어 보면 모기지 대출자의 수익으로 환산될 수 있다. 결국 절대적인 대출 금액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생소하겠지만 이것이 재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는 표준적인 방법이다.

주택 소유주들에게 회사들이 하는 재무회계를 기준으로 계산해보자. 모기지담보채권지수(The ICE BofA US Mortgage-Backed Securities Index)가 2021년 2월 최고치에서 0.25 떨어졌다.

이 상황에서 모기지 채권은 액면가에서 1.5조달러 할인된 금액에 거래됐다. 이는 다시 말해 모기지 대출자가 현재의 시장 액면가로 다시 구입한다면 1.5조달러 만큼의 수익을 얻게 된다.

집 소유주들이 자신의 모기지를 현재의 시장가로 표시한다면 두가지 의미가 있게 된다. 첫번째로 자신이 훨씬 부유해진 것으로 느끼게 된다. 따라서 더 소비하게 되며 저축을 줄이게 되어 경제에 도움이 된다(그러



나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을 키우는 것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의 가치나 집값이 상승할 때 저축을 줄이는 부의 효과로 잘 알려져 있다. 모기지에 대해서는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로 사회는 연준의 결정이 가져다 주는 비용과 혜택에 대해 더 쉽게 인식하게 된다.

금리가 올라 낮은 금리에 대출을 한 모기지 대출자들이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경제가 계속 탄탄해서 직장을 잃거나 매달 상황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부분이 큰 어려움이 없다는 가정하에서만 성립된다.

비록 10만달러 이상의 수익을 낸 것 같은 효과를 거뒀으나 갑자기 부자로 생각해 평상시에는 하지 않을 차를 사거나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시장에서 얻은 수익은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 더 쉽게 사라진다. 불황에서는 더욱 아래서는 안된다.

불황이 찾아들면 연준은 기준금리를 낮추기 때문에 모기지 금리를 낮추게 되고 실업도 늘게 될 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도 낮추게 된다. 그때는 지금까지 수익이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변하고 월 현금 흐름이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급격한 생활의 변화를 추구해서는 안된다.



면역력 재충전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FedEx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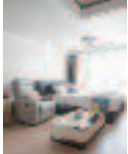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 만성수술

직업병, 식습관, 생활환경으로 오는 만성질환?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절차/ 치료 후 사후 관리/ 비용등...
이 모든 걱정으로 선택 못하신 고국방문 수술.
휴람은 국내수가로 부담없는 비용에 편안하고 안전한 진행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치질, 담낭용종(결석), 탈장, 하지정맥류, 요실금,
자궁근종, 전립선비대증, 코골이, 목/허리 디스크,
관절질환, 암질환, 심장/뇌혈관질환 등등.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충북역) / H+양지병원(신림역) / 세란병원(독립문역)
강남지인병원(학동역) / 장트위튼병원(서울대입구역) / 강남병원(신갈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a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협력업체

팬데믹 위기를 기회로 이끈 남궁주환 클라리티 대표

▶▶1면에 이어서

년 처음 인터뷰 이후 팬데믹을 거치며 회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클라리티는 연 3천만달러의 매출에 현재 약 160명의 직원이 소속되어 있다. 팬데믹 전보다 매출도 직원도 늘었다. 미국내 11개 주에 직원이 있고 심지어는 아르헨티나와 일본에 각각 2명씩 근무하며 점차 미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다만 직원 거의 대부분이 원격근무를 하고 있다.

과거에는 컨설팅업체의 특성상 대부분이 외근하고 약 60여명이 일상적으로 출퇴근했었으나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이제는 매일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직원 12여명이다. 사무실 공간이 필요 없어지자 과거 1층 반을 쓰던 사무실을 1개 층으로 줄이고 직원들이 좋아 할만한 이벤트를 만들어 스스로 출근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시카고 트리뷴이 선정하는 “Best Working Place” 6위에 선정됐다는 것이다.

남궁 대표는 “근무를 강제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다시 출근할 수 있는 이유를 주고자 했다.” 고 말했다. 회사 성장은 좋은 직원에서 시작된다는 그의 리더십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그와 현재 사업의 근황과 리더십, 정치 참여 등 다양한 주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현재 회사 현황은 어떤가.

클라리티(Clarify Partners LLC)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16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3천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옛날하고 비슷하게 정부의 하청을 받아 일하고 있다. 이제는 미국 다른 주에서도 일을 받아 일하고 있다.

(근무지에 따라 집이 결정됐던 과거와 달리) 원격으로 근무하는 집이 어디냐에 따라 어디서 근무하고 어디서 사는지를 규정하게

됐다. 팬데믹 전에는 고용할 엄두도 못냈던 직원들을 이제는 고용이 가능하다. 이것이 가장 큰 변화다.

나쁜 점은 시카고에 살던 직원들이 시카고 밖으로 옮겨갔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전히 근무하지만 시카고의 밖으로 이사했고 이들은 과거처럼 사무실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많은 회사들의 경우 직원들이 사무실에 출근하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클라리티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직원들에게 사무실 근무를 너무 강요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그래서 근무 시간 중이나 근무 후에 더 많은 이벤트를 만들어 그들이 사무실로 출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주었고 대신 다시 사무실에서 출근해서 근무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사모펀드 회사 킨지 캐피털 파트너스(Kinzie Capital Partners)은 한인 2세 수잔 윤하고 공동 설립한 회사다. 사모펀드(Private Equity) 운영 경력이 있는 수잔은 미국 내에서 사모펀드를 설립한 첫번째 아시안 여성이다. 사모펀드 분야는 대부분이 백인 남성이 지배하고 있는 분야다.

2018년에는 2천만달러 투자금을 받았다. 2019년 회사를 하나, 2020에 다른 회사를 매수했다. 2022년에는 기관 투자자들, 펜션, 인다우먼트, 개인 들을 합해 1억 5천만달러의 두번째 사모펀드를 만들었다. 두번째 펀드를 통해 골프 인더스트리트에 있는 회사를 매수했으며 이제는 좀더 작은 회사를 구매 기존의 회사에 더해 생산품을 늘리고 사업 지역도 늘려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두번째 펀드에서는 현재 두번째 회사 독점 구매 계약을 진행중이다.

일반적으로 약 5년 정도 회사를 유지하며 때론 좀더 길게 또는 짧게 운영하다 회사를 판매(Exit)하게 된다.



▶▶팬데믹이 어떤 영향을 미쳤나?

무서웠다.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지 몰랐다. 우리 고객사들도 출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느꼈다. 클라리티는 처음에는 아주 불확실했지만 바로 깨달은 것은 사람들은 집에서 아주 일을 잘 한다는 것이다.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것이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테크놀로지 컴퍼니였기 때문에 아주 쉽게 원격근무에 적응했다.

팬데믹 전에는 2개 2층에 약 50-60명이 출근했다. 상당수의 직원들은 고객사로 주정부로 가곤 했다. 그런데 현재는 약 8-12명만 출근하고 있다.

▶▶직원들의 출근을 장려하기 위해 어떤 이벤트를 주로 벌였나?

와인앤 치즈 목요일, 목요일에는 파머스마켓에서 신선한 치즈와 빵 등을 사와서 일과가 끝나고 와인앤 치즈를 곁들이는 이벤트를 했다. 또한 자원봉사 자선사업을 해서 이에 참가하도록 했고 땀스기빙을 위해서는 모든 직

원이 점심을 가져와 같이 먹는 행사도 했다. 또한 여름에는 배구 축구 스포츠팀을 만들어 일과가 끝나고 경기를 가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출근을 해야 할 환경을 조성했다. 여름에는 많은 인턴들을 고용해 슈퍼 바이저가 좀더 자주 출근해 인턴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들은 멘토링을 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이었다.

▶▶높은 금리, 각종 국제적인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한인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조언을 준다면

스몰비즈니스는 고객 행동에 집중해야 한다. 고객들이 높은 금리에 영향을 받아 더 이상 소비하는 것을 줄인다면 사업체들도 가장 효율적이고 적은 비용으로 운영해야 한다.

경기가 좋을 때는 많이 필요하지 않는 것에도 돈을 쓸 수 있다. 그러나 경기가 나빠지면 빠르게 절감모드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한발 앞서 대처해야 한다. 고객들이 줄인다면 이에 앞서 줄여가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돈을 잃지 않게 된다.

▶▶7면으로 계속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6면에 이어서

현재 상황에서 레스토랑 운영자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집에서 일하는 것이 식당 사업에 영향을 주고, 세탁업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아주 영업을 잘 되는 곳이라 할지라도 이 같은 상황에서는 약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된다.

▶2018년 인터뷰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매출 증대였다. 아직도 매출 증대가 가장 어려운 문제인가?

회사가 성장하면 사람들도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성장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른 곳을 가거나 그만둔다. 성장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준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 같은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은 어렵다. 주고객인 정부도 팬데믹 지원금이 거의 고갈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자금마련에 분주하다. 다른 회사들도 비용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컨설팅 회사 전체적으로 많이 사람들을 하고 있다.

때로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성장이다. 좋은 측면은 직원들의 이직이 아주 줄어든다는 것이다. 우리 업계의 경우는 언제나 최고의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은 능력있는 직원들을 고용하기가 쉽다.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이 어려운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을 구하기가 쉽다. 언제든지 세상일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AI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

클라리티는 AI 태스크 포스를 만들었다. 어떻게 내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추적하는 일을 했다. 현재는 우리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장치에 장착했다. 인공지능은 아무도 대신하고 있지는 않지만 생산성을 늘리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AI 도입이 느리지만 예를 들면 상업용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비디오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많은 경찰 및 정부 차량에 찍히는

비디오를 분석해 도로의 수리가 필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면 이런 것은 아마도 언젠가는 정부기관이 구입하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AI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자율주행, 로봇, 챗 GPT를 보면 때로는 잘못된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두렵게 하는 것은 모든 AI의 발달이 나쁜쪽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지금은 스팸을 쉽게 구분하지만 AI만들면 개인의 정보를 도용해 진행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면 결국은 누구를 경찰이 추적해야 하는지 모르게 된다. 누구를 기소해야 할지 모르게 된다.

▶시민협회의 영리더십 심포지움에서 연사로 강연한다 오늘 어떤 것을 강연할 예정인가?

KACL의 사명을 보면 정치계에서 한인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20년간 내 삶의 한 부분이었다. 나는 컨설팅 회사를 시작하고 정부의 일을 맡아 진행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부관계자 정치인들과 알게 됐다. 이 같은 교류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너무 아시안 아메리칸 정치인들이 적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변화를 이끌어 내고 싶었다. 현재 시카고 쿡 카운티에서는 모든 정치 분야에서 아시안들이 진출하게 됐다. 연방, 주정부, 그리고 카운티까지 20년동안 아시안 선출직을 당선시켰다. 이런 측면에서 너무 KACL의 미션과 겹치게 된다. 이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다.

이번 YLS의 주제는 브레이킹 배리어 옴과 우어링 찬지이다.

브레이킹 배리어는 정치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첫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중요하다. 그러나 일단 진출을 시작하고 나면 변화를 시작하게 된다. 나는 내 삶 동안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변화를 이끌어 냈다. 이것을 나는 내 부모를 통해 배우게 됐다. 내 엄마는 가족을 두고 홀로 미국에 와서 자리를 잡았다 이것은 새로운 도전이었다. 어머니가 했던 것이 바로 브레이킹 배리어 옴과워링 체인지이며 KACL의 사명은 내가 해왔던 것을 생각나게 하기에 강연을 많이 기대하고 있다.

▶앤디김이 연방 상원에 출마했다. 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말해달라.

앤디김은 첫 코리안아메리칸 연방 하원이었다. 앤디김이 시카고에 왔을 때 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는 뉴저지의 유권자가 아니다. 주위에 그에 대해서 알리고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우리 한인들은 투표율이 낮다. 그러면 정치인들도 당연히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 투표는 우리에게 힘을 주게 된다. 변화를 원하면 행동을 바꿔서 모든 선거일에 나가서 투표를 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도 권유해야 한다. 동시에 선거자금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는 많은 기부를 하지 않는다. 만약 뉴저지에 살지 않아 투표로 도움을 줄 수 없다면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방법이다.

▶아직도 시카고 클라리티는 대나무로 된 바닥을 유지하고 있는가?

매일 뱀부 플로어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매번 엘리베이터를 내릴 때마다 나에게서는 대나무 바닥이지만 누구에게는 이것이 뱀부 실링이 된다는 것을 되새긴다.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것은 중요하며 장애물이었던 것을 벗어나야 한다며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인사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중요하다. 불평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참여하지 않는다. 한인들과 아시안들은 너무 수동적이다. 변화는 행동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모두가 참여해서 일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액티브 한 것이 중요하다. 좋아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만 행동을 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으면 행동을 취해라. 너무 패시브 하다. 변화는 스스로 행동하기 전에는 바뀌지 않는다.

나는 그동안 많은 실패한 후보를 지지했으며 많은 성공한 후보를 지지했다. 만약에 지지하지 않고 당선되기만을 바랬다면 결코 당선되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는 그렇게 작용하는 것이다.

editor@bostonkorea.com



뉴햄프셔 방산업체, 커뮤니티칼리지 전액 지원 후 채용 프로그램

부족한 인력 확보 위해 도제 제도 도입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햄프셔의 방산업체 BAE시스템스가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슈아 커뮤니티칼리지에 도제프로그램을 도입해 2년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채용한다.

BAE시스템스는 내슈아, 메리맥, 허드슨 그리고 맨체스터에 위치해 있으며 6,559명의 직원을 보유한 업체다. 이들은 상업용, 또는 국방부용 항공 전자 장비와 엔진 조절장치, 항공 감시 및 전자 전투 장비를 생산한다.

지난 팬데믹 때 직장을 잃었던 바네사 콜맨은 팬데믹 동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첫번째 졸업한 학생이다. 그는 이번 기회에 대해 “정말 기쁘다” 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내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5주동안 어떻게 현미경 등 장비를 다루는지를 다루고 부품이 품질 기준에 부합한지를 판별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 후 품질 관리사가 된다.

BAE 품질관리부 브라이언 스보다 부사장은 현재 회사는 약 150~200명에 달하는 품질 관리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은퇴하는 사람들을 대체할 인력을 구하고 있다.

보통 5~10명이 참가하는데 사람들은 훈련 과정 중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아주 장기 근속하게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매매 합니다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안약 27개 종 자발적인 리콜, 제조과정서 오염

아직까지는 피해 사례 보고 안돼...염증에서 실명까지 위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월마트, CVS, 라이트에이드, 타겟 등 미국내 주요 시중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던 27개 종류의 안약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갔다. 이들 약품은 미 식품의약국(이하 FDA) 조사관들이 제조과정에서 위생적이 못한 조건들을 발견하면서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한 제품들이다.

인도의 안약 제조공장인 킬치 헬스케어(Kilitch Healthcare India)는 16일 27개종의 안약을 자발적으로 리콜했다.

11월 10일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킬치 헬스케어의 안약 제조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맨발로 일을 했으며 일부는 제품이 안전도를 보장한 허위 테스트 결과를 만들어냈다. 안약을 안약용기에 집어넣는 지점의 일부 샘플에서는 박테리아 오염이 발견되기도 했다.

안약은 당연히 살균된 제품이어야 한다. 특히 눈에 사용되는 안과약품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다른 부위보다 위험도가 크다. 인간의 눈은 다른 신체 부위와 달리 특별한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킬치 헬스케어 인디아는 제품들을 미국내 전역의 대형 약국들에 유

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FDA는 지난 10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26개 안약을 리콜했으나 제품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었다. 당시 리콜 제품들은 이번엔 리콜된 제품에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다음은 FDA가 리콜한 안약 전체 리스트다.

〈Rugby〉
LUBRICATING TEARS EYE DROPS 15 ML
Polyvinyl Alcohol 1.4% Lubricating Eye Drops 15 ml
〈Target〉
High Performance Lubricant Eye Drops 15 ml (Single Pack)
High Performance Lubricant Eye Drops 15 ml (Twin Pack)
DRY EYE RELIEF 15 ML (TWIN PACK)
〈Rite-Aid〉
MULTI-ACTION RELIEF DROPS 15ML
LUBRICATING GEL DROPS 10ML
LUBRICANT EYE DROPS 10ML (TWIN PACK)
LUBRICANT GEL DROPS 15 ML

LUBRICANT EYE DROPS 15ML (TWIN PACK)

〈Leader〉
Eye Irritation Relief 15 ml
Dry Eye Relief 10 ml
Dry Eye Relief 15 ml
Lubricant Eye Drops 15 ML (Single Pack)
Lubricant Eye Drops 15 ML (Twin Pack)
Lubricant Eye Drops 10 ml
Velocity
〈CVS〉
Lubricant Eye Drops 15 ML (Single Pack)
Lubricant Eye Drops 15 ML (Twin Pack)
Lubricant Gel Drops 15 ml (Single Pack)
Lubricant Gel Drops 15 ml (Twin Pack)
Multi Action Relief Drops 15 ml
MILD MODERATE LUBRICATING EYE DROPS 15ML
Lubricant Gel Drops 10 ml
Lubricant Eye Drops 10 ml (Single Pack)
Lubricant Eye Drops 10 ml (Twin Pack)
〈Walmart〉
EQUATE HYDRATION PF LUBRICANT EYE DROPS 10ML



미국속 한인들의 뽕스기빙 문화는 어떻게 다르나

▶▶1면에 이어서

뽕스기빙에 어떻게 지낼지 물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총 14명의 보조교사 가족들 중 29%는 뽕스기빙에 특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64%에 달하는 대부분의 한인 가족들은 뽕스기빙을 대수롭지 않게 일상과 다르지 않은 날로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00년도 질레스피 통계(Gillespie)에 따르면 91%의 미국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가장 큰 명절로 가족들과 함께 보낸다는 것과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10명 중 9명의 미국 사람들은 온 가족이 함께 모이거나 친척집에 방문하곤 한다.

한인 2세들이 뽕스기빙에 친지를 방문하는 여행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는 주된 이유는 미국에 친척이 없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그럼에도 뽕스기빙을 큰 명절의 하나로 즐기는 한인 가족들도 있다.

특히 미중부 지역의 한인들은 가족들이 자주 모인 반면 뽕스기

빙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들은 그렇지 않은 점은 특이하다.

따라서 이번 뽕스기빙데이에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경우 1621년 필그림이 와파노아그 미원주민들과 “First Thanksgiving”을 한 것처럼 터키, 크랜베리 소스, 스터핑 등 풍요로운 식사를 먹으며 가족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추천한다.

“추수감사절이란?” 이라는 질문에 공통된 답은 문화와 사는 곳에 상관없이 가족과 함께 무언가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는 소중한 날로 기억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웰빙과 음식에 관련된 내용으로 기억하는 것도 많았다.

뽕스기빙을 어떻게 즐기든 가슴이 따뜻한 뽕스기빙은 모든 이의 공통된 관심사였다.

〈이 기사는 뉴잉글랜드한국학교 보조교사회가 만든 신문 KSNEAN에 게재됐던 기사를 사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bostonkorean@hotmail.com

J.K. HEATING & PLUMBING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업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제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레스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요가송의 5분요가

볼륨있는 애플힙 만들어주는 10분 하체 운동 루틴 (무릎 안전)



“저진 엉덩이가 고민이에요.”
 “무릎이 자주 아파요.”
 “내 생애 애플힙을 가져보는 게 소원이예요.”
 최근 제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받은 문의와 요청인데요, 해당사항이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운동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구나 웨이트 필요없이
 맨몸으로 따라하는 운동이구요, 초보자나 무릎이 약하신 분들도 안전하고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제가 영상에서 천천히 설명했으니 영상 참고해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 유튜브 채널 ‘요가읽어주는 여자 hayeon’ 에서 (DAY6) 십분 요가 I 허벅지 군살.. 편을 찾아 따라하세요.

1. Side Lying Leg Extension : 중둔근(엉덩이 근육) 강화, 엉덩살 제거

1단계 옆으로 누워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합니다.
 2단계 두 다리를 모았다가 천천히 위에 있는 다리를 천정 사선으로 올려 길게 뻗어주세요.
 3단계 다시 무릎을 접어 모은 후 같은 자세를 45초 반복합니다.
 4단계 엉덩이 바깥쪽의 자극에 집중해보세요.
 TIP! 두 엉덩이가 서로 수직으로 같은 선상에 위치하게 위에 있는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 유의하며 운동해주세요.

2. Clam Shell 변형 + Hip Lift : 코어, 힙 가동성 향상



1단계 이번에는 두 발을 붙이고 두 무릎을 모았다가 벌리는 동작입니다.
 2단계 두 발을 바닥에서 떼고 할 수 있다면 뎀 상태에서 진행해주세요.
 3단계 앞의 동작을 45초 진행 후 영상의 다른 동작 몇 개를 이어서 진행해 약해진 둔근의 힘을 길러줍니다.
 4단계 숙련자들은 엉덩이를 바닥에서 떼고 클램셸 동작에 도전합니다.
 5단계 45초가 무리라면 중간에 언제든지 엉덩이를 바닥에 내리고 하셔도 됩니다.
 TIP! 귀와 어깨를 멀리 유지해 목에 불필요한 긴장감을 최소화 시키고 운동내내 힙의 자극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3. Bridge Pose + Hip Opener : 힙업, 안벅지 스트레칭

1단계 등을 대고 누워 두 다리를 모아 Narrow Bridge 동작으로 엉덩이를 올려주세요
 2단계 내시는 숨에 엉덩이를 들었다가 들숨에 엉덩이를 내리고 두 무릎을 벌려줍니다.
 3단계 위의 두 동작을 반복하며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안쪽의 자극에 집중합니다.
 4단계 45초 후 잠시 휴식 후 영상을 참고해 복근 운동으로 운동 마무리해주세요!
 TIP! 엉덩이를 들어 올릴 때 갈비뼈와 복부



가 위로 나오지 않도록 코어의 힘을 주면서 갈비뼈와 배꼽을 등쪽으로 수축합니다.

송선생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요가 & 필라테스

“필라테스와 요가를 한번에”
 요요없는 체중감량에 성공하고 싶다면? (특정부위 집중 감량 가능! 예. 뱃살, 등살, 허벅지...)
 생리통,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쉽게 지치고 아픈 '저질 체력'이라면?
 다른 사람 신경 안쓰고 맘편하게 운동하고 싶다면?
 작심삼일 즉 하다말다 하는 운동에서 탈피! 제대로 꾸준히 규칙적으로 운동하려면?
 (온라인 개인 1:1 과 그룹 수업 모두 가능)
 *참여방법 - 카톡아이디 YOGAFUL-NESSLIFE 로 '친구추가' 한후먼저 인사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ENG)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KOR) <https://bit.ly/3w9ks4u>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ness.life

성양두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YVES ROMAN CATHOLIC CHURCH

성 양두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은 새 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 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7시30분 매달 첫토 오전 10시 30분
--	--

연락주세요:
 stadparish@gmail.com / stdaveluychurch.org
 617-558-2711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렬

핸디맨 앤디
HANDYMAN ANDY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Boston



Boston

TOP REAL ESTATE PRODUCERS 2023

COMPASS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보스턴 매거진에서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ason Jeon

Compass

Cambridge, MA · 617-642-5670
compass.com · jason.jeon@compass.com

Jason Jeon is a highly experienced and reputable real estate professional with over a decade of experience in the industry. With his solid expertise in luxury home purchases and sales, he provides his clients with exceptional consulting, marketing, and negotiation services. Having lived in Boston for over 30 years after being born in South Korea, he has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local real estate market. Jason's dedication to his clients is evident in his personalized approach, where he prioritizes building solid relationships through effective communication, credibility, and determination. Being a Pricing Strategy Advisor, he leverages his extensive pricing knowledge to offer his clients informed pricing strategies, and his exceptional negotiating skills ensure the best possible outcomes for them in every transaction. Jason's commitment to providing exceptional customer service is evident in his genuine and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his clients.

Jason Jeon

Vice President

M: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매사추세츠산 최고급 위스키 <나치>를 아십니까?

나치 8년산 \$250, 나치 12년산 \$350, 나치 15년산 \$500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낸터킷 소재 트리플에잇 양조사(Triple Eight Distillery)가 만든 고급 싱글몰트위스키 나치(Notch)가 연말 시즌을 앞두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대량 판매를 시작했다. 트리플에잇은 2023년 이전에도 소수의 주위 사람, 낸터킷 방문자 또는 온라인으로 판매했으나 올해 처음으로 수천병에 달하는 8년산, 12년산, 15년산 나치를 시판한다. 트리플에

잇은 마티그네티 사를 통해 이 고급 위스키를 배포할 계획이다. 적은 양을 제조하는 고급 위스키 인만큼 750밀리리터 위스키의 가격은 상당히 고가다. 8년산은 \$250, 12년산은 \$350, 15년산은 \$500이다. 그러나 실제 소매가격은 12년산의 경우 \$435을 호가하고 있기도 하다. 트리플에잇의 모회사인 낸터킷의 시스코 브루어스의 하먼 대표는 현재 이 같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치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트리플에잇은 무려 25년 전부터 위스키 제조를 시작했다. 특히 위스키는 오크통에서 숙성하는 기간이 중요하기에 2008년 첫 생산을 시작했으며 2008년 제조한 400병은 거의 순식간에 판매가 완료됐다. 하먼 대표는 “위스키 제조의 핵심은 인내이며 이는 열정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나치는 각종 제조업체의 상을 휩쓸었다. 나치 12년산은

2016년 미국 최고 위스키로 선정됐으며, 2022년에는 미국내 최고 소량제조 위스키로 선정됐다. 일부 업계 인사들은 너무 적은 양을 생산하다 보니 트리플에잇 주요 관계자들이 자신들끼리 마시기 위해 좋은 술을 비축하고 있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하먼은 이번에는 트리플에잇이 지금껏 위스키 제조에 투자한 시간, 돈 그리고 인내가 결국은 수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금 은 위스키를 맛본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유일한 위안” 이란다. 위스키는 맥주를 증류해 나온 원액을 오크통에 숙성시켜서 만든다. 와인을 증류해 만드는 술은 꼬냑이다. 위스키의 색깔과 향은 오크통 나무에서 숙성 과정 중 배어들어 형성된다. 맥주를 만들어 증류해 숙성까지 한 회사에서 모두 진행될 때 이를 싱글 몰트 위스키라고 한다. 최고 위스키는 대체로 셰리오크통(Sherry Oak)에서 숙성된 위스키로 여긴다. 트리플에잇 웹사이트는 15년 산 나치 위스키에서 셰리오크통의 아로마가 우아하게 베어있다고 밝히고 있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업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계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인플레이션 둔화에 미국 연착륙 가시화...연준에 앞서 시장 '환호'

선물시장서 내달 금리동결 전망 100%... '골디락스' 기대감 커져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최 미국 경제 전망을 두고 그동안 경착륙과 연착륙 견해가 엇갈려온 가운데, 최근 발표된 10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로 연착륙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전월 대비 0%에 그치고 전년 동기 대비 3.2%로 둔화하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WSJ이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6개월 전에는 향후 12개월 내 침체를 예상하는 견해가 콘센서스였지만, 지난달 조사에서는 침체가 없을 것이라는 게 평균적 견해였다.

이번 CPI 발표 이후 미국 주식·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등 침체 가능성에 대한 시장 전망은 더욱 내려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WSJ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인 2%가 손에 닿는 거리에 들어왔다면, 6~10월 5개월간 근원 인플레이션(에너지·식품 제외) 상승률이 2.8%(연율)로 1~5월의 5.1%(연율)보다 크게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CPI의 선행지표로 평가되는 미국의 10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월 대비 0.5% 하락,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1.3%였다.

계다가 기업들이 계속 직원을 채용하고 있고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하지 않으면서 경제가 너무 뜨겁거나

차갑지 않은 이른바 '골디락스' 상태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싱크탱크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낸시 반덴 하우턴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연착륙을 예상한다"면서 "경제가 상당히 약해지겠지만 완전한 수축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리서치업체 인플레이션 인사이즈의 오메어 사리프는 연준이 주시하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로 측정한 근원 인플레이션이 연말에는 당초 전망 3.7%보다 낮은 3.4%를 기록할 것으로 보기도 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에서는 다음 달과 내년 1월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100%로 올라갔다.

내년 5월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은 56.9%, 7월에는 기준금리 상단이 5.0% 이하일 것으로 보는 견해가 61.8%이다.

다만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을 우려하는 연준으로서는 인플레이션이 2%로 갈 때까지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제품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출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약적인 통화정책에 전념하고 있다"면서도 "그러한 기조를 달성했다고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필요시 추가 긴축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성급히 승리 선언을



구인광고

해서는 안 된다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착륙을 위해서는 현재의 소비 수준이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며, 실업률이나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 등 노동시장에 경고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계다가 최근의 주가 상승과 채권 금리 하락도 연준의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bscha@yna.co.kr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美정부, 내년 초까지 섣다운 모면... 상원도 임시예산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미국 연방정부가 최소 내년 초까지 섣다운(일시 업무정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로이터, AP,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15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내년 1~2월까지 사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을 찬성 87표 대 반대 11표로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 들어간 안은 지난 9월 말에 처리된 임시예산이 종료되는 오는 17일 이후에 적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이었다.

앞서 지난 14일 하원에 이어 상원도 임시예산안을 가결해 오는 17일 이

후 우려됐던 미국 정부의 섣다운을 내년 초까지 피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연방정부의 섣다운 우려는 미국의 국가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안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 부처별로 예산이 소진되는 시기가 다르게 설정됐다.

보훈·교통·농업·주택·에너지 등 관련 부처는 내년 1월 19일까지 필요한 예산을 책정했다.

전쟁 등 국제정세 혼란 속에 역할이 강조되는 국방부와 국무부 등은 2월 2일까지 예산을 담았다.

inishmore@yna.co.kr

좋은사람들
www.huram.co.kr
성모안과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이상 수술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성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미 대학 외국인 유학생 급증... "40여년만 최대폭 증가"

2022~2023학년도 105만7천명...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한국 학생 4만3천명으로 3위, 8% 증가...인도 학생 35% ↑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자 미국 대학에 유학을 온 외국인 학생 이 40여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 하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고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와 국제 교육연구소(IIE)는 이날 보고서에서 2022~2023학년도 미 대학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외국인 유 학생은 105만7천188명으로 직전 학 년도와 비교해 거의 12% 증가했다 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1970년대말 이후 처음이다.

2019~2020학년도 외국인 유학생은 약 107만5천명에 달했지만 2020년 초 코로나19 발병에 따른 각국의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 강화로 그다음 학 년도에는 약 91만4천명으로 급감했 다.

2022~2023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중국 학생이 28만9천526명으 로 가장 많았지만 직전 학년도와 비 슷했고, 2위는 인도 학생으로 35% 급

증한 26만8천923명이었다.

유학생 수 순위는 중국과 인도 모 두 변함이 없었지만 인도가 중국을 비껴 뒤쫓았다.

한국 학생은 8% 늘어난 4만3천847 명으로 3위를 유지했다.

이어 캐나다 학생(2만7천876명), 베트남 학생(2만1천900명), 대만 학 생(2만1천834명) 등의 순이었다.

메리언 크레이븐 국무부 학술교 류 담당 부차관보 대행은 최근 "미국 은 인도와 교육 부문에서 강력한 관 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인도 학생들이 미국 대학의 최고 수준 교수진을 비롯한 많은 이유에 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 학생 대부분은 석사 학위나 전문 자격증 취득을 노리고 있다.

이들 가운데 1천248명이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의 올해 가을학기에 등록했다. 메릴랜드대 칼리지파크 캠퍼스에는 1천589명이 등록했다. 대다수는 대학원생이다.

인도의 이웃 국가들에서도 많은 학생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있다.

지난 학년도 미국에 유학 온 네팔



대학 캠퍼스의 모습

학생은 1만5천명, 방글라데시 학생 은 1만3천500명을 각각 넘었다. 두 국 가 학생을 합한 수치는 그 직전 학년 도보다 28% 늘어난 것이다. 파키스 탄 학생은 16% 늘어난 1만100명가량 이다.

2022~2023학년도에 신규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은 거의 30만명으로 14% 증가했다. 여기에는 학부생과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소수의 해외 온라인 등록 학생, 졸업 후 임시 취업

프로그램 참여자도 포함된다.

이처럼 늘어난 외국인 유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은 미 대학들의 주요 수 입원이 됐다.

미 정부는 이들이 유학 기간 지출 하는 비용이 연간 380억달러(약 50조 2천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추산했 다.

앨런 굿맨 IIE 소장은 "외국인 유 학생과 가족들이 졸업장에서 원하는 것은 '메이드 인 USA'"라고 말했다.

kms1234@yna.co.kr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성 도박으로 인해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Massachusett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The MA Problem Gambling
Helpline
800-327-5050



**LET'S GET REAL
ABOUT GAMBLING**

"보험료율 13% · 소득대체율 50% 땀 국민연금 고갈시점 7년 연장"

연금특위 자문위, 모수개혁안 보고... "15% · 40% 땀 고갈 16년 늦춰져" 구조개혁 강조 정부와 입장차... 복지장관 "국민 · 기초연금 같이 봐야"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p)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분석이 나왔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을 보고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은 42.5%이다. 이를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추정된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된다"고 말했다. 또 "보험료율을 15%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71년으로 16년 정도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된다"고 말했다.

또 "보험료율을 15%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71년으로 16년 정도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면 소득대체율을 3분의 1 정도 인하는 것과 비슷한 규모의 재정 안정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급한 모수 개혁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것이 전체 연금개

혁 비전에 대한 소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 구조개혁과 관련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을 노인 빈곤 해소에 집중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최저소득보장 연금으로 발전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직역-국민연금을 완전히 통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보고했다.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되고 공무원연금 등 직역 연금도 이에 상응한 재정 안정화 조치가 이뤄지면 신규 입직자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점진적 통합 방안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가입률이 낮은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민연금 기금에 적립하여 운용하는 방안, 퇴직연금전환금제를 부활해 퇴직연금 부담금(월급의 8.33%) 중 3%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돌리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고도 이뤄졌다.

정부가 마련한 연금개혁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으로부터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특위 민간자문위의 입장이 엇갈린다'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는 질문을 받고 "민간자문위와 정부 생각이 다른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자문위는 모수개혁을 먼저 논의해 동력을 확보하자고 하고, 저희는 구조개혁에 해당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이므로 어느 하나를 논의할 게 아니라 같이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한다고 해도 정부 · 여당의 건의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mihye@yna.co.kr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 전망

	현행	국민연금 모수 개혁 대안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덜 받기
보험료율	9%	13%	15%
소득대체율	42.5%	50%	40%
기금 예상 고갈 시점	2055년	2062년 (7년 연장)	2071년 (16년 연장)

연합뉴스

자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이재윤 기자 20231116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NOV. 17th - NOV. 23rd, 2023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Tis the season for holiday celebrations! Bring new creativity to your Thanksgiving table, come in to H Mart today.

H 마트와 함께 추수감사절 연휴를 준비하세요!

GET COZY WITH KABOCHA GALBI JJIM!

This iconic Korean favorite is the answer to your cold weather woes, and it just got even better with seasonal kabocha!

H 마트와 함께 준비한 단호박 갈비찜으로 추수감사절 만찬을 더욱 빛내보세요.



신 선 한 정 육 M E A T at unbeatable low prices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SMART CARD MEMBER ONLY**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 제 봉
DIRECTOR
781.654.5281
jl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okim@bostonpremierrealty.com



팀장 한 준 희
ASSOCIATE DIRECTOR
617.586.9192
jhwan@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cassyle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송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kristinle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 보 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hyunshin@bostonpremierrealty.com



대표 나 원 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다이에나 김
617.271.2037
daisykim@bostonpremierrealty.com



율리 김
978.694.2043
yul@bostonpremierrealty.com



니키 박
617.447.0501
nikipark@bostonpremierrealty.com



데이비드 조
617.786.7839
davidcho@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김
978.886.3248
jinakim@bostonpremierrealty.com



이은정
401.935.3397
eunjungkim@gmail.com



세라 김
617.358.6787
seira@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김
617.455.7710
gracekim@bostonpremierrealty.com



현수 김
617.508.6973
hyeonkim@gmail.com



마리아 김
213.505.0397
maria@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김
413.607.1402
miki@bostonpremierrealty.com



선광호
617.813.3268
sungho@bostonpremierrealty.com



최현민
617.877.0387
heonmin@bostonpremierrealty.com



이은순
781.899.3412
eunjungkim@bostonpremierrealty.com



한혜수
781.899.1214
hyeonkim@bostonpremierrealty.com



지연영
617.515.1162
jinyoungkim@bostonpremierrealty.com



이은경
617.645.6728
eunjungkim@bostonpremierrealty.com



헤온 김
604.841.5102
heonkim@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917.224.66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8652
nancywang002@gmail.com



Shirley Zhao
857.201.0316
shirleyzhao002@gmail.com



Vivian Yu
617.936.2715
viviany@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622.8979
xian2022@gmail.com



Lu Jiang
248.448.0117
lujiang1@gmail.com



John Tran
617.406.9652
johntra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003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a
978.873.0075
mike@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u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9.29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8.7212
lilywang@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08.0255
crystalwei@bostonpremierrealty.com



빙센트 박
201.446.8996
vts118@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968.0409
jakekim@bostonpremierrealty.com



이성진
857.280.6434
isangjin@bostonpremierrealty.com



Nimi Bolanger
413.257.1686
nimitb@bostonpremierrealty.com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EBS · 입시업계 "국어, 킬러문항 없지만 작년 수능보다 어려워"

EBS "선지 정교하고 세심해져...지문 · 선지 길이 길지 않아"
입시업체 "9월 모의평가에 대한 학습이 체감 난이도 결정할 것"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김수현 기자 = 16일 시행된 2024학년도 대학 수능능력시험(수능) 국어 영역은 지난해 수능이나 9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EBS 국어 대표 강사인 서울 덕수고 윤해정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이번 수능 국어 영역은 작년 수능, 9월 모의평가보다 수험생들이 다소 어렵게 체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수능 국어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34점으로 다소 평이했다는 평가였다.

표준점수는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주는 점수다.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상승한다.

'킬러문항 배제 방침' 이후 처음 치러진 9월 모의평가에서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42점으로, 다소 어려웠다는 평을 받았다.

윤 교사는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소위 '킬러문항'은 확실히 배제됐다"면서도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 · 선지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문이나 선지의 길이도 특별히 길지 않다"며 "선지의 정교함과 세심함을 통해 실질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지문의 논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선지를 꼼꼼히 읽어야 정답을 고를 수 있다는 의미다.

독서 지문은 4개 모두 EBS 수능 교재에서 연계돼 체감 연계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문학에서는 고전 소설은 지문의 일부분이, 현대시와 고전 시가는 각각 한 작품씩 EBS 수능 교재에서 연계돼 출제됐다.

변별력이 높은 문항으로는 '데이터에서 결측치와 이상치의 처리 방법'을 소재로 한 과학 · 기술 지문에 달린 10번 문항과, '노자'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을 다룬 인문 지문에 포함된 15번 문항이 꼽혔다.

윤 교사는 "(10번과 관련된) '데이터의 이상치와 결측치'는 낯선 개념이지만, 지문 내에 개념이 충분히 설명돼 있어 특별한 전문지식 없이도 지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동양 철학을 다룬 15번 역시 대학별 논술고사를 미리 준비한 학생이 유리할 수 있어 킬러문항으로 볼 수



2024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일인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문용어, 과도하게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EBS, 학교 수업을 통해 충실히 학습했다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끝별의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유한준의 '잊음을 논함'을 제재로 한 현대시 · 고전 수필 복합 지문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묻는 27번도 수험생들이 까다롭게 느꼈을 것으로 분석됐다.

답화 내용이 작성된 글에 잘 반영됐는지 묻는 화법과 작문 40번 문항, 부사어의 다양한 쓰임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언어와 매체 39번 문

항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쉽지 않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킬러문항 배제 여부와 시험 난도에 대해서는 입시업계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초고난도 문제는 없었고 9월 모의평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 유형과 선택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변별력을 갖춘 문항을 만들었고 '매력적인 오답'이 많아 수험생 입장에서는 작년 수능이나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9월 모의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분석과 학습 정도가 (이번 수능의) 최종 체감 난이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전년도 수능보다 변별력을 확보해 국어의 영향력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종로학원 국어영역 강사진 역시 "국어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모두 지난해 수능과 9월 모의평가에 비해 어렵게 출제됐으며 특히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가운데 문법 파트를 응시생들이 많이 어렵게 느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porque@yna.co.kr

김기현 "당내 문제에 대통령 언급은 바람직 안해"...인요한 직격

(세종=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6일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끝까지 당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고 밝힌 데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인 위원장이 윤 대통령 의중을 암시하면서 당 지도부와 친윤(친윤석열) 핵심 인사들의 '용퇴'를 거듭 촉구하고, 혁신위로부터 당 리더십을 흔들 수 있는 '혁신위 조기 해체' 가능성까지 흘러나온 데 대한 반응이다.

김 대표는 "당 내부 문제는 당의 공식 기구가 있다. 당 지도부가 공식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65회 대한민국의조천기대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기구와 당내 구성원들과 잘 협의해서 총선 준비를 하고, 당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시스템이고, 그것이 잘 작동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위 조기 해체설에 대해선 "혁신위 내부에서 논의되는 걸 알가알 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그 문

제는 혁신위 내부에서 잘 의논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자신을 향한 불출마 또는 합지출마 요구에 대해선 "당 대표의 처신은 당 대표가 알아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격이 다른 학식...인제대, 최고급 스테이크 4천900원에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국

경남 김해에 있는 인제대학교가 16일 CJ프레시웨이와 함께 최고급 스테이크, 블랙타이거 새우 등을 올린 '특별한 점심'을 준비해 학생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대학 직영 식당인 다인에는 이날 식사 한 시간 전부터 스테이크 요리를 즐기려는 학생들의 긴 줄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날 학생들 식판에 오른 것은 최고급 스테이크와 버터를 발라 구운 블랙타이거 새우, 인텔리카리+난+스쿱밥, 보코치니 샐러드, 푸딩에 근사한 무알코올 와인까지 근사하게 차려졌다.

이 모든 메뉴가 단돈 4천900원. 재료 등 원가만 1인당 2만2천원으로 외부 식당에서 이날 오른 점심 식단을 즐기려면 최소 3만~4만원 정도는

줘야 한다.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이날 주방에는 이 학교 조리사들 외에 CJ프레시웨이에서 파견 온 요리사들도 스테이크를 뜨거운 불에 굽고 정성스럽게 차리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학교 식당에서 근무하는 신라영 영양사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점심을 위해 전날 밤부터 식재료를 챙기고 이른 아침부터 조리를 시작했다"며 "특식 이벤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워낙 좋아서 흐뭇하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수능시험 당일 연 특별한 점심 2탄 이벤트에 이어 새내기들이 입학하면 더 특별한 3탄 이벤트 학식을 준비할 계획이다.

나노융합공학부 4학년 김민철 학생은 "4년 동안 학교 식당에서 스테이크를 맛보는 건 처음이라 특별한 맛으로 추억할 것 같다"고 말했다.



수잔리 부동산

“수잔 부동산은 미국 최고 부동산 회사 Keller Williams Group과 팀워크로 전문적 정보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여러분의 재산을 소중히 합니다. 오랜 부동산 거래 경험과 다양한 투자 노하우로 성공적 투자, 여러분의 재산 증식에 최선을 다합니다.”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산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탁월한 협상. 전문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마켓 인사이트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조지아 아틀란타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수잔리 부동산 대표

MA Licensed Realtor
CEO, The Pro Realty Group
CEO, 조지아 Keller Williams 수잔리 부동산

NAR(미 전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GBAR(보스턴 부동산 협회) 정회원
NAMAR(조지아 부동산 협회) 정회원
Multi Million Dollar Producer



CLHMS
Certified Luxury Home Marketing Specialist
럭셔리 홈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ABR
Accredited Buyer Representative
공인 바이어 전문가



NEW LISTING

PRICE: \$ 1,190,000

Newton Centre. Newton South High School,
역세권 걸어서 Green Line T 까지 5분,
방3, 화장실 2.5, 2790SqFt.

하숙, 홈스테이 비즈니스 최상 위치. 렌트 수익성 좋음.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 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Website: findhomesinma.net
245 First St. Cambridge, MA 02124

골프와 인생 12

박진영 (보스톤라이프스토리닷컴 대표)

14번홀: 골프 그리고 운과실력

골프를 치다보면 종종 행운이 따라 붙는 경우가 있다. 파5 세번째 샷이 그린 주위 10야드 거리에 안착, 마음을 겸허히 비우고 핀 주위에 갖다 붙인다는 일념으로 가볍게 쳐낸 나의 볼이 생각지도 않게 홀컵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 생각지도 않았던 버디이다. 이것은 나에게 어쩌다 한번 찾아오는 행운이라 말할 수 밖에 없다. 파3 샷을, 나의 볼이 핀에서 한참 떨어진 그린 맨 끝자락에 걸쳐있다. 핀까지 족히 20야드는 되는것 같다. 대충 라이보고 홀쪽으로 대충 퍼팅하니 볼이 한참을 굴러가다 슬금슬금 홀컵속으로 자취를 감춘다. 이게 웬때, 오랫동안 친구들에게 맘 쓰리게 기부하던 기부를 했던 나의 기부금을 일거에 회수한다. 정말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일들이 라운딩 내내 한번 나올까 말까, 아니 한 10번 라운딩하면 한번 나올까 말까 하니 내에게는 정말 행운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내에게는 행운인 이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는 행운이 아닌것 같으니 참 기이하다. 내 주머니 속의 지폐가 마치 자기 돈인양 내 허락도 없이 자기 맘대로 꺼냈다 넣었다 하는 싱글치는 웬수같은 친구놈은 이런 행운이 두 번걸러 한번꼴로 나오는것 같다. 친구의 볼은 저 멀리 있고 나의 볼은 핀 1.5미터 안쪽에 있어 이번 홀은 이기겠거니 생각하고 여유 부리며 편짓하고 있는 동안 친구의 퐁퍼팅이 홀컵으로 떨어진다. 아이가 없어 한참을 멍때리다 결국 나는 그 쉬위 보이던 1.5미터 퍼팅을 놓치고 만다. 이쯤되면 내에게는 행운인 그 일들이 그에게는 행운이 아니라 실력인 것이다.

늦은 밤 골프채널을 시청하며 맥주를 한잔 기울이다보면 화면에 나오는 프로들은 일반인들은 평생 한번 할까 말까한 홀인원을 밥먹

듯 쉽게 한다. 퐁퍼팅이던 샷이던 아주 쉽게 집어 넣는다. 심지어는 파4 세컨샷에 바로 볼을 홀컵에 넣어 말로만 듣던 이글을 간간히 해 버린다. 이쯤되면 나에게 찾아오는 행운들이 이들에게는 일상인것라고 말할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누구에게는 행운이 어쩌서 누구에게는 일상이 된다는 것인가? 이 말은 운도 실력이다라는 말을 다시금 새겨들게 만든다. 아무 준비도 노력도 없이 요행을 바라다 운 좋게 바라던 일이 이뤄지면 그건 행운이요, 매일 칩샷을 연습하고 끊임없이 퍼팅을 연습하면서 실전을 준비한다면 이는 더 이상 행운이 아닌 실력인 것이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위를 보면 참 운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재수, 삼수를 해도 입학하기 어려운 대학을 한번에 쉽게 합격한다. 어렵게 입사한 회사에서 쉽게 실적을 내며 승승장구한다. 똑같은 메뉴의 식당을 개업해도 누구는 운 좋게 손님이 많아 이윤을 많이 남기는데 누구는 파리를 날리며 신세 한탄만 하게된다.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봐도 누구는 러쉬아워에 길막혀 삼십분 거리를 두 시간에 가게 되어 지각을 하는데 누구는 운 좋게 막힘없는 골목길로 달려 정시 출근을 한다. 이 모든 현상이 정말 운이 좋고 나쁨에 달려 있을까?

명문대를 한번에 합격하는 사람은 아마도 재수, 삼수하는 학생이 잠자고 놀때 잠도 안자고 열심히 공부하였을 것이다. 회사에서 실적을 내어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훨씬 많은 업무량과 노력으로 일의 성과를 얻어냈을 것이다. 손님 많은 식당 주인은 누구보다 열심히 상권분석하고 서비스와 음식맛에 만전을 기울였을 것이다. 막히지 않는 길을 이용해 지각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



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들여 골목길을 인지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만의 막히지 않는 길을 알아냈을 것이다.

골프나 인생에서 행운은 결코 누구에게나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부단한 노력과 준비를 한 사람에게는 행운이 일상처럼 찾아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운 좋게 가뭄에 콩나듯 한번쯤 찾아온다 그것도 정말 운이 좋을 때 말이다.

“인생에서 많은 행운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열심히 노력해라. 행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쉽게 찾아오는 것이다.”

15번홀: 버디 후 OB

참 희안한 일이다. 나 같은 경우 전홀에서 버디를 잡으면 다음홀 티샷이 거의 대부분 OB가 나가거나 운 좋게 OB가 아니더라도 백사리 나서 아주 고약한 위치에 볼이 떨어진다. 이 말은 버디 후 잘해야 더볼보기 아니면 트리플, 양파를 한다는 이야기다. 나만 그렇게 아니라 나같은 주말골퍼는 물론 어느정도 경지에 오른 싱글 언저리 친구들도 여지없이 이법칙 아닌 법칙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나의 어설픈 썰로 설명해 보자면 나에게 경기내내 한번도 나오기 힘든 버디의 기회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는 전홀 버디의 여흥이 다음홀 티샷에 큰 영향을 주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즉 전 홀의 성공이 현재의 위치에서 나의 정신줄을 마구 흔들려 놓는 결과가 아닐까 한다.

하지만 소위 프로라고 일 는 전문가들은

좋은 기운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나쁜 여운은 과감히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것 같다. 골프채널에서나 볼 수 있는 프로들의 경기장면을 보면 아주 당연하게 줄버디를 이어 가는 모습을 쉽게 보게 된다. 역으로 전홀에서 볼운이 겹쳐 최악의 점수를 내었다 하더라도 다음 홀에서 이글 아니면 적어도 버디로 전홀의 마이너스를 보완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프로와 아마추어의 극명한 현실적 차이인 것이며 매번 돈을 잃고 우울한 나와 내돈이 자기 돈인양 허세를 부리는 싱글 골퍼 친구와의 차이점인 것이다.

나는 일상에서도 자주 이런일을 경험하게 된다. 좋은일이 생기면 꼭반드시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 일을 상쇄하는 나쁜일이 종종 발생한다. 내게 생각지도 않았던 재물이 들어왔다. 가령 옷장속의 옷을 정리하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비상금을 발견한다. 속으로 황재했다고 쾌재를 올리며 아내 몰래 어디다 쓸까 행복한 고민에 빠진다. 그러던 중 정신줄 놓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과속으로 딱지를 떼게 된다. 아까운 비상금이 통째로 날아가는 순간이다. 버디 후 OB가 나는 순간이다.

뜻하지 않게 좋은 일이 생기면 흥분하지 말고 그 기운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려 보자 반대로 나쁜일이 생기면 그 일에 연연하지 말고 훌훌 털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자 생각하며 다음 홀을 준비한다.

“성공 하는것 보다 그 성공을 유지하는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경상북도 특판전

새바람 행복 경북!

Hurry, our event ends soon.

Annual Festival of Goodness from GYEONGBUK

November 17th - November 30th, 2023
at H Mart BURLINGTON, CAMBRIDGE, & QUINCY Stores

까다롭게 엄선한
경북 특산물을
소개합니다.
고향 내음 가득한
제품들을 H 마트에서
만나보세요.

Seaweed
Laver
곱창 재래김
5 OZ
(50 PCS/PKG)

\$12.99



Mushroom
Roasted
Seaweed
Snack
버섯가루
돌김자반
1.76 OZ

\$1.99



DAEGE GIM
Snow Crab Seaweed Snack
대게김 0.14 OZ X 16 EA/PKG

\$5.99



HANDO
FOOD
Hansangung
Delicious
Scorched Rice
한상궁
맛나 누룽지
ORIGINAL/21.16 OZ

\$5.99



Fish Cake Soup with Red Crab
힘찬씨푸드 힘찬 홍게어묵탕 28.21 OZ

\$9.99



KOKKIRIEOMUK
Chewy Squid
Fish Cake Bar
코끼리푸드
쫄깃쫄깃
오징어맛바

\$4.99



3.88 OZ
X 5 PCS/PKG

Fishcake
Soup
참도깨비
맑은한끼
어묵탕
7.76 OZ

\$2.99



BEOM CHON
Spicy Cold
Raw Fish Soup
범촌 포항
발효 물회
SQUID/10.58 OZ

\$4.99



Plum
Syrup
한국맥꾸름
맥 매실청
300 mL

\$6.99



POHANG
WELLBEING
Rice Noodles
포항 웰빙
미가면 쌀국수
ANCHOVY/SEAFOOD/
BEEF BONE
3.24 OZ X 5 EA/BOX

\$7.99



HAEJEONG FOOD
Busan Pocha
Muldeek and
Fishcake
해정식품
부산포차
물떡앤어묵 19.7 OZ

\$4.99



Ulleungdo
Myeongyi
Pickle
울릉도의 보배
명이절임
4.58 OZ

\$4.99



Namwon
Sancho
Loach Soup
남원
산초 추어탕
1.1 LB

\$4.99



Handmade Dalgona
오늘도 달고나 크런치/땅콩
CRUNCH - 3.4 OZ PEANUTS - 2.8 OZ

\$2.49

\$2.99



Squid
Sundae
바다포차
구룡포
오징어순대
6.35 OZ

\$5.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63) 주식투자에 관한 생각

새로운 한 해 시작이 엿그제 같았는데 벌써 11월이다. 물가 상승, 우크라이나 전쟁, 연준 이자율 상승, 경제 침체 예고, 중동에 서 새로운 전쟁, 등 비관적인 소식이 끊임없다. 나의 주식 투자 돈도 롤러코스터처럼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고 있다. 과연 나의 투자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마음 역시 갈팡질팡한다. 맑은 가을 오후 투자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누어 본다.

*연세가 지긋한 여사분들이 옛날 친구를 만나서 “너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재정설계사가 “투자 위험성은 없고 수익률은 높다.” 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거짓말인지 우리는 판단해야 한다.

*누군가가 100% 확신과 자신이 있게 말하는 투자 조언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런 투자 조언은 유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주식시장은 연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르고 내린다.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이 바보스럽고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 바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움직이는 주식시장과 은퇴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는 전혀 별개임을 인식해서 투자해야 한다.

*라디오 방송에 투자하는 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투자 프로그램 대부분은 돈 주고 방송 시간을 산 후 ‘투자 조언’을 하는 것이다. 진행자는 청산유수처럼 투자에 관하여 열심히 설명한다. 그러나 말 잘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투자 조언인지 청취자는 판단해야 한다.

*주식시장 미래를 예상하는 사람은 경제와 주식시장을 연구한 사람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특히 주식시장은 더욱더 어렵다. 예측을 계속해서 하기에 한번은 맞는 경우는 있다. 그

러나 주식시장을 반복해서 정확히 예측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과거 자료가 분명히 보여준다.

*언제 주식시장이 하락할지 예상할 수 없다. 그러나 투자자 대부분이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금융업계는 “투자 위험성은 적고 수익률은 높다” 는 상품을 끊임없이 만들어서 판다. 말 자체가 맞지 않는다. 어떻게 ‘수익률은 높고 위험성은 적을 수 있을까? 미국에 600,000명의 주식 브로커가 있다. 이 많은 사람이 무언가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투자자는 알아야 한다.

*개별적인 주식 투자는 결국에는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식시장은 매우 효율적인 곳이다. 어떤 회사의 주식가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는 물론 우리가 모르는 많은 정보도 이미 주

식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보험은 투자가 아니다. 보험회사에서 만든 금융상품을 좋은 투자종목이라고 판매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투자하기 전 수수료(commission)와 모든 투자 경비가 얼마인지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이다. 하락하는 주식시장에선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지난 90년 미국 주식시장 수익률은 연평균 약 10%이다. 수익률 10%는 7.2년마다 투자 돈이 두 배로 증가하는 높은 수익률이다. 주식시장이 두려워서 투자하지 못하면 이러한 수익률을 받을 수 없다. 주식 투자해서 재미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투자자는 대개 주식 투자를 ‘도박’ 처럼 투자했기 때문이다.

*인덱스 펀드를 추천하는 이유는 투자 경비도 저렴하고 투자 위험성도 적고 수익률도 뮤추얼 펀드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원화源花 미실美室(5)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미실을 출궁시키고 난 지소태후는 아들 세종에게 용명(458)을 부인으로 맞이하게 하였다. 그러나 세종은 용명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오로지 미실만을 그리워하였다. 진흥왕역시 갑자기 뒤바뀐 상황의 진위를 모후에게 물어 보았지만 지소는 왕에게도 소상히 말하지 않았다.

반면, 출궁한 미실은 옛 연인 사다함을 찾아가 그간 못다한 사랑을 나누며, 지아비는 마땅히 사다함이 제일이고 부귀는 한때라며 그들은 부부가 되기를 굳게 언약하였다.

562년 9월(화랑세기에는 개국開國11년, 즉 561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진흥왕은 이사부에게 가야를 정벌하라고 명하였다. 이때 사다함은 선봉이 되길 청하였다. 진흥왕은 사다함이 어리다고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다함은 ‘왕명을 어기고’ 휘하의 낭도들을 거느리고 출정하였다. 사다함의 어머니 금진은당시 남편인 설성(薛成459)에게 “그대는 무품無品인데 여러 차례 나라의 은혜를 입었다. 이 때에 나의 아이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의 남편

이 아니다” 라며 출정하여 사다함을 도우라고 강권하였다. 이에 설성은 사다함의 휘하에 들어 갔다. 많은 낭도들을 이끌고 출정한 사다함은 아인을 대파하였다. 그러자 왕은 그의 전공은 치하하며 사다함을 귀당비장貴幢裨將으로 삼았다. 이에 앞서, 사랑하는 연인을 전장으로 보내는 미실은 그녀의 애절한 마음을 노래로 불러 사다함을 전송하였다. ‘풍랑가風浪歌’ 또는 ‘송출정가送出征歌’로 이름 붙여진 미실의 노래는 다음과 같다.

〈바람이 분다고 하되 입 앞에 불지 말고
물결이 친다고 하되 입 앞에 치지 말고
빨리빨리 돌아오라 다시 만나 안고보고
아흐, 임이여 잡은 손을 차마 물리랴〉

사다함은 미실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으며 전장으로 향했다. 사다함이 그 전투에서 세운 혁혁한 전공은 화랑세기와 삼국사기(권44)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화랑세기(5세 풍월주 사다함조)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사다함은 16세의 나이로 귀당비장에 임명되어 5천의 정병精兵을 거느리고 전단문(가야 왕성의 문)으로 들어가 백기를 세웠다. 그리고 대가야의 왕 도설지를 포로로 잡았으니 가야군은 모두 진압되었고 대가야는 종말을 고했다. 승전고를 울리며 돌아온 사다함에게 진흥왕은 많은 전답과 포로들을 상으로 내렸다. 사다함은

모든 전답을 부하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포로들도 모두 양인良人으로 풀어 주었다. 왕이 더욱 기뻐하며 알천의 비옥한 땅을 내리자, 군이 사양하여 받지 않고 불모지의 수백 경頃을 택하였다. 그리고 그 땅은 낭도들이 전장에 출정하지 않을 때 농사를 지으며 그들의 근면성을 기르게 하였다.

당시 4세 풍월주이화랑은 사다함에게 풍월주의 위를 물려주었고 사다함은 설성의 아들이자 이부동복 동생인 설원랑을 부제로 삼았다. 당시 설원랑의 나이 13세 였다. 아쉽게도 부인 금진의 강권으로 대가야 정복에 참전했던 설성은 전사하고 말았다.

458) 용명의 부모는 진종과 보옥공주이다. 진종의 부모는 지증왕과 연제부인이니 그는 곧 법흥왕의 아우이다. 보옥공주는 백제의 제21대 개로왕의 딸이다. 용명의 오라버니 김달복은 정희(김유신의 누이)와 혼인하여 27세 풍월주 흠돌을 낳았다. 흠돌은 김유신의 장녀 진광과 결혼하였고 딸을 낳아 제 31대 신문왕의 왕후가 되었으니 왕의 장인이기도 했다. 그러나 흠돌은 681년 흥원, 진공 등과 모반을 꾀하다 발각되어 처형되었다. 그 역모가 이른바 ‘흠돌의 난’ 이다.

459) 설성은 설씨녀의 아들로, 7세 풍월주 설원랑의 아버지이다. 설씨녀는 16세에 유화遊花가 되어, 어느날 사랑하는 낭도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날 그 낭도는

출정하였다. 3년 후면 온다던 낭도는 돌아오지 않았고, 14년을 기다려도 오질 않았다. 그 때 구리지(사다함의 아버지)가 우연히 어떤 마을을 지나가다가 설성을 보았다. 신분은 천해 보어도 기상만은 늙름하였다. 그 아이의 부모가 누군지 궁금하여 물어보니 미혼모 설씨녀가 그의 어머니인 걸 알게 되었다. 흠속에 묻혔던 진주같은 설씨녀를 발견한 구리지는 후처로 들이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서야 정절이 곧은 설씨녀의 마음을 얻었다. 그리고 합가를 한 설성은 구리지의 용양인으로, 구리지가 548년 독산성 전투에서 죽을 때까지 충심으로 그를 섬겼다. 구리지가 전사하자 사다함의 어머니 금진은 장남 토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성을 남편으로 삼았다. 그들 사이에서 7세 풍월주 설원랑이 태어났다. 화랑세기(7세 풍월주 설원랑조)에 설씨녀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아마도 삼국사기(권48 열전 설씨조)에 기록된 가실과 설씨녀의 이야기는 화랑세기의 이 내용을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유학자적 사고를 개입시켜서, 그들의 사랑과 신뢰를 교훈적으로 전하고자 한 것 같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40 Celebrating **years** **H MART**
Since 1982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NOV. 16th - NOV. 23rd, 2023

Raw Nature
자연담은

**COOKED
WHITE RICE**
— 자연미 흰쌀밥 12팩 —

\$8.99

**7.4 OZ X 12 EA
/BOX**

← REG. \$14.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이 시대에 딱 맞는 듯한 설렘과 웃음...영화 '싱글 인 서울'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나랑 딱 맞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싱글이 답이다." "혼자인 인간이야말로 가장 진화한 인간이다." "인간은 혼자야 돼야 비로소 자신이 보인다."

싱글의 삶을 즐기는 영호(이동욱 분)의 말이다. 혼자 살겠다는 생각이 거의 철학 수준이다. 이 정도면 답이 없다고 할 만하다.

박범수 감독의 신작 '싱글 인 서울'은 싱글의 삶을 고집해온 영호가 사랑에 눈을 뜨는 과정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다.

영호는 작가를 꿈꾸는 논술 강사다. 돈을 꽤 잘 버는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널찍한 고층 아파트에 혼자 산다. SNS에서 수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파워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

영호는 혼자 사는 게 조금도 불편하거나 어색하지 않다. 백반집에서 '혼밥'을 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혼자 고기를 구워 먹는 건 고민 끝에 포기할 법도 한데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고깃집에 들어가 1인분을 주문한다.

그런 영호에게 동네북이란 이름의 자그마한 출판사가 책을 한 권 내보자고 제안한다.

서울과 미국 뉴욕,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사는 세 명의 싱글이 쓴 글로 '싱글 라이프 에세이'를 만들어보는 것이다. 출판사 편집장 현진(임수정)과 영호의 만남은 그렇게 이뤄진다.

현진도 싱글이지만, 영호와와는 여러모로 다르다. 일 하나는 똑 부러지게 잘하지만, 일상생활엔 서투르다. 현진이 가장 둔한 건 연애다. 연애축이 너무 없어 남자가 별생각 없이 내뱉은 말도 자기에 대한 '플러팅'(추과 던지기)으로 착각하고 혼자 맘속으로 소설을 쓴다. 영호의 눈에 그런 현진이 들어올 리가 없다.

영호와 같은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는 길은 두 가지일 수 있다. 하나는 아름다운 존재에게 매혹돼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을 가로막는 마음속의 벽을 허무는 것이다.

영호는 두 번째의 길을 간다. 싱글 라이프 에세이가 첫사랑의 이야기로 발전하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마음속의 벽과 마주하게 된다.

'싱글 인 서울'은 요즘 세대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것 같다. 첫눈에 반해 밤잠을 설치는 것도, 이별 앞에서 울고불고하는 것도 찾아볼 수 없

다. 이 영화의 등장인물은 거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그대신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주고받는 '썸'이 이어진다. SNS에 올려놓은 사진이나 글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리저리 짐작해보는 것도 요즘 세대의 모습일 것이다.

이 영화는 '썸'의 설렘과 함께 소소한 위트로 관객을 즐겁게 한다. 현진이 일하는 동네북 출판사의 대표 진표(장현성), 동료 직원 윤정(이미도), 병수(이상이), 예리(지아수), 현진의 친구 경아(김지영)는 시종 티키타카로 웃음을 자아낸다.

바르셀로나에 살면서 '싱글 라이프 에세이'에 기고하는 흥 작가(이솜)는 이 영화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울의 아름다운 풍광도 볼거리다.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이는 레스토랑, 늦가을의 그윽한 정취로 가득한 고궁, 해가 질 무렵 빌딩과 차에 하나둘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리 같은 걸 보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걸 새삼스럽게 알게 된다.

설렘을 자극하는 데는 음악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영화에선 악동뮤지션의 '오랜 날 오랜 밤'과 김현철의 '오랜만에'가 그 역할을 한다. 관객은



극장을 나서면서 자기도 모르게 '오랜 날 오랜 밤'을 흥얼거릴지도 모른다.

로맨틱 코미디 '레드카펫'(2014)으로 장편에 데뷔한 박 감독은 이번 작품에서도 재치 있는 대사로 웃음

을 선사한다.

이동욱과 임수정을 비롯한 배우들의 연기로 빛어낸 친근한 캐릭터들은 올해 연말 극장을 찾은 관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만하다. 29일 개봉. 103분. 12세 관람가.

11월 19일 - 11월 25일

재미로 보는 **주간운세** **지윤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공간에 곡식이 가득 쌓이듯이 ● 운수: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앞으로 쪽쪽 뻗어 나갈 수 있습니다. ● 금전: 공간에 곡식이 가득 쌓이듯이 재물이 늘어나는 운세입니다. 투자와 관련해서도 좋은 기회가 올 것입니다. ● 애정: 내 발이 나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줍니다. 느낌이 오거나 끌리는 대로 간 곳에서 좋은 일이 있거나 행운이 따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2, 25일 기일. 20, 23일 주의.	소띠 아낌없이 먼저 베풀어야 ● 운수: 지금 찾아온 기회를 꼭 잡아야 합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한동안은 다른 기회가 쉽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 금전: 아낌없이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지금은 돈을 나가지만 인심을 얻으면 나중에 더 큰 자산이 되어줄 것입니다. ● 애정: 말을 전할 때는 과정에서 너무 세게 표현하지 마세요. 배려하는 마음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9, 23일 기일. 21, 24일 주의.	범띠 다 뿌린 만큼 거두게 되어 ● 운수: 여러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더 헛갈리게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자기 주관대로 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 금전: 당장은 바보같이 사는 것 같고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억울해하지 마세요. 세상이 치가 언젠가는 뿌린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 애정: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과 다를 뿐이라고 생각하세요. 98, 86, 74, 62, 50, 38년생은 20, 24일 기일. 22, 25일 주의.
토끼띠 긍정적인 에너지가 ● 운수: 밝고 환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내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 금전: 그냥 받은 것이 있으면 갚으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사상입니다. 먼저 베풀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 애정: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가가야 합니다. 상대가 사랑한다는 확신이 들면 그다음부터는 순조롭게 진전될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1, 25일 기일. 20, 23일 주의.	용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 ● 운수: 미리 메모해놓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중요한 일을 까맣게 잊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 금전: 미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후에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즉흥적으로 행동하다가 손해 보기 쉽습니다. ● 애정: 안 맞는 구두를 신으면 발에 상처가 나는 것처럼 안 맞는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면 상처를 입게 됩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2, 23일 기일. 24, 25일 주의.	뱀띠 한 번만 더 생각해야 ● 운수: 거대한 폭풍우도 시간이 지나면 그치고 날씨가 맑아지듯이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한 것도 결국은 다 지나갑니다. ● 금전: 돈을 쓰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과한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 애정: 같이 살면서 항상 좋은 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고 상처도 받으면서 사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세요. 01, 89, 77, 65, 53, 41년생은 20, 23일 기일. 22, 25일 주의.
말띠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 운수: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한 더 나은 세계로 가기 위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 금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직관에 따라가 보세요. 더욱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 애정: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합쳐집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21, 24일 기일. 20, 23일 주의.	양띠 좋은 기회가 ● 운수: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견주어서 자신을 스스로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 금전: 될 수 있으면 변화를 주지 말고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기회가 올 것입니다. ● 애정: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세요. 겉으로 좋게 보여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0, 25일 기일. 23, 24일 주의.	원숭이띠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이니 ● 운수: 내가 아는 것이 사실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 금전: 현실에 맞는 지출만 해야 합니다. 기본대로 쓰다가는 큰돈이 빠져나갑니다. ● 애정: 가까운 곳에 두고도 쉽게 찾지 못해서 헤맬 수 있습니다. 본시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이니 주위를 잘 살펴보세요. 92, 80, 68, 56, 44, 32년생은 22, 24일 기일. 19, 25일 주의.
닭띠 깨끗하게 받아들여야 ● 운수: 지레 겁먹고 몸을 사리지 마세요. 미리 걱정하면 할수록 좋은 기회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 금전: 기대했던 것만큼의 결과가 따라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하세요. ● 애정: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신은 속이지 못하니 이제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스스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깨끗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9, 22일 기일. 20, 24일 주의.	개띠 누구라도 귀하게 대해야 ● 운수: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가 누구라도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 금전: 급하게 이루려고 하지 말고 서서히 쌓아가야 합니다. 속도를 줄일수록 중요한 것이 보이고 결국 자신에게 득이 됩니다. ● 애정: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0, 22일 기일. 21, 23일 주의.	돼지띠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 운수: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원하던 원하지 않은 상관없이 물갈이하게 될 것입니다. ● 금전: 당장 이득보다는 믿음을 주는 데 신경 써야 합니다. 사람과 사이에 쌓인 신뢰는 언젠가는 빛이 나고 결실을 보게 됩니다. ● 애정: 새로운 것을 원한다면 과거부터 정리하세요. 한 가구를 다 빼내고 방을 비워두어야 새로운 가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1, 25일 기일. 19, 22일 주의.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Saugus 에 있는 chois health spa 에서 카운터겸 Receptionist 와 청소 하실분 구합니다.
TEL: 401 487 3004, email: choishealthspa@gmail.com

세탁소 매매
주인 은퇴, 연매상 30만불
TEL. 978-539-8152

치매 걸리신 아버지 파트타임 도와주실 분
나이 많으시며 치매있으신 웰슬리(Wellesley, Ma)에 사시는
저희 아버님을 파트타임으로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joint@sent.com 으로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대규모 전투로 막 올린 대하사극 '고려거란전쟁' 5%대 시청률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여요 전쟁을 배경으로 한 김동준, 최수종 주연의 대하사극 드라마 '고려거란전쟁'이 5%대 시청률로 출발했다.

12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5분 KBS 2TV에서 방송한 '고려거란전쟁'의 시청률은 5.5%로 조사됐다.

첫 방송은 거란(요나라)과 고려의 전투 장면으로 시작했다. 고려군이 바위가 달린 거대한 방패 역할을 하는 '검차'를 이용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거란의 공격을 힘겹게 막아내는 모습이 담겼다.

1차 방어막이 뚫리자 2차 방어막을 지키던 병사들이 겁에 질려 검차를 버려두고 도망치려 하고, 이에 강감찬(최수종)이 직접 2차 방어막으로 가 검차를 지킨다. 이 모습에 병사들은 사기를 되찾고 다시 전선을 지켰다.

이어 장면이 전환되며 전쟁이 일어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고려 황실의 이야기를 다뤘다.

목종(백성현)은 동성 연인인 유행간(이풍운)에게 빠져 국사를 돌보지 않으며 자녀도 없는 상태이고, 천추태후(이민영)는 자신과 김치양(공정환)의 아들을 태자로 세우겠다고 공언한다.

이에 목종은 왕씨가 아닌 김씨가 황제가 될 수 없다며 어린 시절 궁 밖으로 쫓겨나 절에서 생활하고 있는 왕가의 후손 대량원군(김동준)을 황실로 불러들이겠다고 맞선다.

천추태후와 김치양은 대량원군을 제거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고 위험을 눈치챈 대량원군이 절에 마련된 비밀 장소에 숨어있다가 발각되며 위기에 처하면서 1화가 마무리됐다.

'고려거란전쟁'은 첫 전투 장면에서 웅장한 규모와 세련된 카메라 움직임이 돋보였다. 검차 아래로 침투해 공격하는



거란군 병사의 시선을 1인칭으로 카메라에 담는 등 생생한 연출도 선보였다.

역사적으로도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 목종의 동성애를 과감하게 표현하고 기존의 대하사극보다 한결 가벼워진 대사로 신선한 느낌을 줬다.

다만 일부 시청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게시판 등에서 '고려 병사들의 발음이 불분명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일부 배우의 연기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오후 9시 50분 방송한 남궁민 주연의 MBC 퓨전사극 '연인'은 11.6%의 시청률을 기록해 동시간대 드라마 가운데 가장 높았다. 오후 9시 20분에 방송한 '고려거란전쟁'과 시간이 가장 많이 겹치는 tvN '무인도의 디바'는 5.4%를 기록해 직전 화차(8.0%)보다 낮아졌다.

오후 10시에 방송한 SBS '7인의 탈출'은 5.2%의 시청률로 자체 최저치를 기록했다.

jaeh@yna.co.kr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BTS 정국,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에 4곡 진입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국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신곡 '스탠딩 넥스트 투 유'(Standing Next to You) 등 총 네 곡을 진입시켰다.

14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솔로 앨범 '골든'(GOLDEN) 타이틀곡 '스탠딩 넥스트 투 유'는 5위로 이 차트에 처음 진입했다.

또 솔로 데뷔 싱글 '세븐'(Seven)은 49위로 재진입했고, '3D'는 전주보다 42계단 오른 58위를 기록했다. 정국이 더 키드 라로이·센트럴 시와 협

업한 '투 머치'(TOO MUCH)는 전주보다 한 계단 하락한 94위로 집계됐다.

'스탠딩 넥스트 투 유'는 또한 전세계 200개 이상 국가의 스트리밍과 판매량으로 순위를 매기는 '글로벌 200'과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

정국은 앞서 '세븐'과 '3D'로도 이들 차트에서 정상을 밟은 바 있다.

전 세계 솔로 가수 가운데 한 해 동안 '글로벌 200'과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에 3곡 이상을 1위에 올린 이는 정국이 처음이라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전했다.

그룹으로도 이들 두 차트에서 3곡 이상을 1위에 올린 가수는 그룹 방탄소년단이 유일하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21년 '버터'(Butter),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로 정상에 오른 바 있다.

정국은 '글로벌 200'과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에 '골든' 수록곡 전곡을 진입시켰다.

'골든'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 2위로 처음 진입해 동료 멤버 지민·슈가·뷔와 함께 K팝 솔로 가수 최고 순위 타이 기록을 세웠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나비의 세상'에서 누리는 감사!!

홀췌 2023년 11월의 중순에 들었다. 십일월은 '감사의 계절' 이기도 하다. 이제 한 장 남은 캘린더를 보면서 한해 동안의 일들을 뒤돌아보며 잘 살아왔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는 생각을 해본다. 두 신문에 칼럼 글을 쓰고, 전도사 사역을 하고, 상담 사역을 하며, 방송일도 열심히 하며 또 '상담학 박사과정' 수업도 열심히 듣고, 책도 열심히 읽고, 레포트도 열심히 썼다. 뒤돌아보니 참 많은 일들을 했다고 생각한다. 바쁘고 바거웠지만, 참으로 감사한 날을 보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한 20여년 전 한국에서 오신 아는 지인께서 '나비의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나비의 세상' 이전에 '애벌레의 세상' 을 먼저 듣게 되었다. 땅에 기는 애벌레는 움직이며 기어다닐 때마다 모든 것이 장애물이라는 것이다.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

도 장애물이고, 나뭇가지 하나도 장애물이다. 그때야 어찌 '나비의 꿈' 을 꾸어보거나 했을까. 나비는 처음 알에서 애벌레가 된다. 그렇게 애벌레(누에)가 번데기(고치 집)가 되고 한 참 후에 스스로 고치 집을 뚫고 나오면 성충(나비)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세상에는 공짜가 없음을 또 깨닫는다. 자신의 노력이 없으면 무엇인가 이뤘다고 하더라도 '내 것' 이 아니기에 기쁨과 행복이 적은 것이다. 자녀를 키워보면 느낄 것이다. 요즘 아이들은 하나씩 낳는 가정 이 많이 모두가 귀하게 자란다. 부모님의 보살핌과 엄마의 극진한 사랑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을 한 후 세상 밖에 나오면 세상은 부모님과 함께했던 세상이 아닌 '별난 세상' 을 만나며 당황해한다. 자신 스스로가 해 본 일이 별로 없는 것이다. 뭐든 원하면 부모가 다 해주었기 때문이다.

연년생 세 자녀를 키우며 나는 참으로 바거웠다. 지금 생각하면 아이들에게 미안했던 일들이 너무도 많다. 어찌 됐든 나의 교

육방식은 곁에서 모르는 척하며 세 아이가 어떻게 함께 놀이를 하고 공부를 도와가며 하는가 지켜보는 엄마였다. 나중에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생각하니 그 교육 방식이 나름 괜찮았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제는 모두 자라 서른이 훌쩍 넘은 어른들이 되었다. 막내아들은 결혼해 딸아이가 태어났으니 내게는 '예쁜 손녀딸' 생겨서 저절로 할머니가 되었다.

우리 집 세 아이가 초등학교 어린 시절 아이들과 함께 한국마켓에서 사온 해프 깔런 김치병을 깨끗이 씻어 하얀 뚜껑에 구멍을 몇 뚫고 바깥뜰에 기어다니는 송충이 한 마리를 데려다가 넣고 기르기 시작했다. 이른 아침마다 이슬 맺힌 장미 잎사귀를 한둘 넣 어주면 송충이는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굶아먹곤 했다. 그렇게 얼마를 지냈을까. 어느 날 아침에 보니 송충이는 간데없고 하얗게 고치 집만 보이는 것이 아닌가. 너무도 신기 해서 세 아이들과 함께 환호성을 질렀다.

그렇게 얼마를 보냈을까. 고치 집이 열린

것이다. 송충이(애벌레)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나방(나비)이 되어 고치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다. 우리는 또 신기에서 들여다 보았다. 그럼, 우리 이제 이 나비(나방)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견을 모았다. 대문 밖으로 김치병을 들고 나가 뚜껑을 열고 파란 하늘로 날려 보내주기로 했다. 세 아이들과 엄마는 그렇게 나비(나방)를 자유로운 세상으로 날려 보내주었다. 처음에는 날갯짓이 서툰 듯싶었으나 곧 날아가 버렸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애벌레의 세상' 처럼 환경의 탓을 하며 불평과 불만과 세상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사회를 탓하는 그런 삶을 마주한다면 삶이 얼마나 바거고 힘들겠는가. 세상에는 공짜가 없지 않은가. 자기 힘으로 고치 집을 뚫고 나왔을 때 푸른 창공을 날 수 있는 나비처럼 우리는 모두가 장애물이었던 '애벌레의 세상' 에서 변하여 모두가 놀이터가 된 '나비의 세상' 을 만나야 한다. 그 세상을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파랑새와 행복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파랑새 증후군이란게 있다. 이름하여 Bluebird syndrome이다. 현재에는 만족하지 못하며 막연히 미래의 행복만을 상상하고 기다리는 병적인 증상을 말한다. 분명 파랑새와 행운은 상관관계가 깊다.

오래전 학교에 다닐 적이다. 우리 가족은 학교내 학생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아침이면 학교버스가 등교하는 학생들을 실어 날랐다. 이 통학버스는 아이들 스쿨버스와 같은 모델이었다. 자동차 색깔은 노란색이 아닌 푸른 색이었는데, 제작회사는 블루버

드였다.

포드나 지엠만 자동차 제조회사인 줄로 알 적이다. 그런데 블루버드Blue Bird라고? 자동차 제조회사 이름치고는 이채롭다. 게다가 스쿨버스를 전문적으로 제작한다고 했다. 등하교하는 학동들은 파랑새를 타고 다니는 셈이다.

파랑새를 본적이 있으신가? 뒷마당 나무 가지에 앉아 있는 걸 나는 몇번인가 본 적이 있다. 그렇다고 그날 내게 예상치 못한 행운이 있었던 건 아니다. 아니, 혹시 모른다.

파랑새를 봤던 그날, 내게 닥쳐올 불행이 훗날 놀라 물려 갔을 지도 모르겠다. 파랑새는 기쁨과 행복과 번영을 상징하는 길조라 했다.

시인은 아내를 행복의 파랑새라 했다. 몇 줄 같이 나눈다.

행복의 파랑새는저 멀리 살지 않고...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보내는 시간이 제일 긴 사람...그리고 나 때문에종종 가슴 멎는 사람...작은 파랑새여 아내여 (정연복, 파랑새 중에서)

행복탐구 보고서란 책이 있다. 책 이름은 거창한데, 요지는 간단한 듯 싶다. 행복의 요건은 사랑이며 연결과 소속감이며, 관계활성화라 했으니 말이다. 하나하나한 소리가 행복에 겹다.

아이들 장난감 자동차엔 소방차와 함께 노란색 스쿨버스가 단연 인기있다. 장난감 스쿨버스도 BlueBird에서 만들까?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마태 10:31)



휴람 - 성형외과

해외 동포 특별가 성형 패키지



성형 패키지 특별가 이벤트

눈 꺼풀 + 눈 밑 처짐.....	360 만원	콧대 + 코끝	350 만원
얼굴 처짐(목 처짐 포함).....	700 만원	지방흡입(복부).....	500 만원
가슴(보형물에 따라 가격 상이).....	600~1,000 만원		

* 상담 결과에 따라 수술 방법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이벤트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내용에 따라 휴람에서는 숙박 혜택 및 추가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uraam@huraam.kr / www.huramkorea.com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뇌졸중의 가장 확실한 예방은 '뇌검진'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쌀쌀한 날씨에 발생 위험도가 높은 뇌졸중에 대한 예방책인 '뇌검진'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신경과 조 소영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극심한 두통과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뇌졸중'은 국내 사망원인 4위에 해당될 정도로 위험한 질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 자료에 따르면 뇌졸중 내원 환자수는 지난 2017년 57만 7,689명에서 2021년 62만 342명으로 5년간 약 7.4% 증가했다.

뇌졸중(뇌경색, 뇌출혈) 발생 원인은 혈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인데, 대사성 질환은 혈관 건강을 악화시켜 발병률을 높인다. 특히 최근 젊은층에서 뇌졸중 발병이 늘고 있어 주목된다.

뇌졸중은 중·장년층에 주로 발병하지만 좋지 않은 식습관과 운동부족 등 요인으로 최근 30~40대 젊은 세대 환자가 증가 추세이며 치료 기간이 길어 심각한 후유증이 올 수 있어서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뇌검진이 필요하다.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은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나 혈전이 혈관을 막는 색전증에 의해 발생하는데 뇌졸중의 약 80%가 뇌경색이다. 뇌혈관이 터져 출혈이 나타나는 뇌출혈은 주로 고혈압 환자나 노년층이 많다.

뇌졸중 원인은 다양하다.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 등 대사성 질환이 주범인데, 고혈압 환자는 뇌혈관 질환 발병률이 무려 4~5배 높다. 당뇨병도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려 뇌졸중 위험을 2~3배 정도 증가시키며 고지혈증, 부정맥도 혈전을 만들어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

뇌졸중은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 불린다. 특히 발병 후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전조 증상이 있으면 발병 3~5시간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표적 전조 증상은 마비와 언어 장애, 시야가 어두워지는 시야 장애, 몸 중심을 잡을 수 없는 평형감각 이상 등이 있다.

최근, 뇌졸중 증상이 잠시 나타났다가 회복되는 일과성 허혈 발작, 즉 미니 뇌졸중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미니 뇌졸중은 적절하게 진단받고 치료하지 않으면 3개월 내 뇌졸중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2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일 증상이 반복되면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로 간주하고 뇌 영상 검사를 시행

하는 것이 좋다.

뇌검진은 신체검사, 신경학적 검사, 혈압 등 신체 징후를 확인하는 비교적 간단한 검진부터 뇌 모양을 보는 MRI 검사, 뇌혈관을 보는 CTA·MRA 검사 등 정밀 검진이 있다. 뇌동맥류 발견을 위해서는 경동맥과 뇌혈관 CTA·MRA 검사를 받아야 하고,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 환자라면 혈액검사와 심전도 검사도 함께 받는 것을 권유한다.

뇌검진은 뇌혈관 질환 조기 진단과 예방의 최선책으로, 40세 이상은 증상이 없어도 3~4년에 1회, 가족력과 만성질환이 있다면 1~2년 주기로 받아야 한다. 또한 요즘 같은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에는 뇌혈관이 좁아지고 혈압도 상승해 뇌졸중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뇌검진은 이 시기에 받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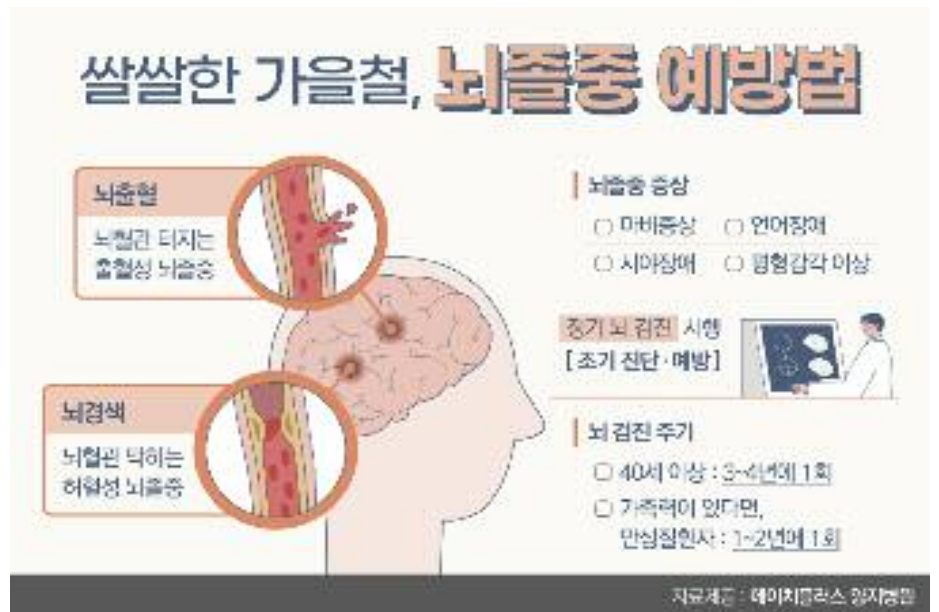
뇌졸중은 대사성 질환을 앓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습관이 있는 사람은 특히 경계해야 한다. 짠 음식은 피하고, 탄수화물과 고기류 섭취도 줄여야 하며 섬유소가 풍부한 야채, 과일 섭취는 늘려야 한다. 혈관 건강을 해치는 흡연과 잦은 음주는 삼가야 한다. 규칙적인 운동과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수시로 체크해 대사증후군에 대비해야 한다.

뇌졸중과 후유증 예방을 위해서는 전문의 상담으로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받고, 정기 검진으로 위험인자를 확인해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쌀쌀한 날씨, 뇌졸중의 가장 확실한 예방은 ‘뇌검진’”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재무법인
호연
호연회계법인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 BUSAN -
KOREA



- 2030 -
WORLD EXPO



World EXPO 2030
BUSAN, KOREA



World Expo 2030
Candidate

@ NOV. 2023



YOU'RE INVITED
TO

2023

KOREAN AMERICAN SOCIETY OF MASSACHUSETTS

매사추세츠 한인회

송년의밤

Holiday Party

DECEMBER

SATURDAY

16

AT 7PM

BOSTON MARRIOTT BURLINGTON

1 BURLINGTON MALL ROAD, BURLINGTON MA 01803

RESERVATIONS OR TICKET INFORMATION CALL:

예약 티켓문의 978 - 994 - 0306

Join us for a night filled of raffles, dancing and fun for all!

고국방문 항공권, 냉장고, 대형 스마트 TV 등등

푸짐한 경품이 준비되어있습니다.

제 19회 뉴잉글랜드지역 어린이 동요 합창제

2023. 12. 2. 토 3:00-5:00

장소: 뉴잉글랜드한국학교
130 Wheeler Rd., Newton, MA

- ★ 참가대상: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
참가부문: 합창 또는 중창 ★
- ★ 발표분야: 전래동요, 창작동요, K-pop, 사물놀이 등
신청방법: 각 학교에서 1팀이상
참가팀별 구글폼 작성(QR Code) ★
- ★ 신청마감: 11월 23일 일요일
시상내역: 심사를 통해 트로피와 메달(상품) 수여 ★
- ★ 행사순서: 동해 독도 지명표기조사활동 공모전 시상식
(1:30-2:30)
합창제 접수 및 입장(2:30-3:00)
합창제(3:00-5:00) ★
시상 및 간식(5:00-5:30)
- ★ 후원 및 참가 문의: naksne.secretary@gmail.com
klee.ksne@gmail.com
- ★ 후원금 보내실 곳: KSNE- NE(check)
Sang Kang, PO Box 337 Billerica, MA 01821



주최
후원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교장단 및 이사회 보스톤 **코리아**



- BostonKorea.com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주세요.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데스크탑에 북마크로 저장해 주세요

보스톤코리아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2



3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